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체육학 석사학위논문

스포츠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들의 경험과 의미 탐색

-Y유소년 야구클럽을 중심으로-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박 찬 우

스포츠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들의 경험과 의미 탐색

-Y유소년 야구클럽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권 순 용

이 논문을 체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박 찬 우

박찬우의 체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8월

위 원 장 권 성 호 (인)

부위원장 이 용 호 (인)

위 원 권 순 용 (인)

국문초록

스포츠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들의 경험과 의미 탐색

-Y유소년 야구클럽을 중심으로-

박 찬 우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는 스포츠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들이 인식하는 아버지다움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버지들이 스포츠양육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함의를 갖는지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스포츠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들이 인식하는 아버지다움은 무엇인가? 2)아버지들이 인식하는 아버지다움은 스포츠양육을 통해 어떻게 실천되는가? 3)스포츠양육을 통한 아버지다움 실천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연구 문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달성하기 위해 2017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참여자 선정은 질적연구 방법 중 의도적 표본추출(purposeful sampling) 중 사례인기준(criterion) 표본 추출을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소년 야구클럽에 자녀를 두고, 아버지가 자녀의

스포츠활동에 적극적으로 1년 이상 참여하고 있는 10명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아버지들이 인식하고 있는 아버지다움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 참여하는 아버지들은 관계적 측면을 중시하여 아버지다움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유년시절 아버지와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적 측면에서 아버지다움을 형성하고 있었다.

둘째, 스포츠양육을 통한 아버지다움의 실천은 오늘날 아버지들로 하여금 자녀에게 인생과 경험을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아버지의 로망에서 시작한 놀이는 아버지와 자녀의 소통의 매개체로 자리잡으면서 소통의 확대를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아버지들이 자녀와 함께 스포츠에 참여하면서 자녀의 성장을 느끼고,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면서 아버지 스스로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오늘날 좋은 아버지담론의 한계 속에서 적극적 양육 실천의 전략으로 놀아주는 것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스포츠양육을 통해 아버지다움의 실천은 기존의 여성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양육이 전통적 젠더역할을 재현하는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주요어 : 스포츠양육, 아버지다움, 아버지, 아버지역할하기
학 번 : 2012-21454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5
3. 연구 문제 ····· 5
4. 용어의 정의 ····· 6

Ⅱ. 이론적 배경 ····· 7
1. 현대사회의 가족과 아버지 ····· 7
1) 가족의 변화와 오늘날의 아버지다움(fatherhood) ····· 7
2) 아버지다움(fatherhood)과 남성성(masculinity) ····· 11
3) 아버지와 스포츠의 관계 ····· 15

2. 스포츠양육의 이해 ····· 18
1) 양육의 개념 ····· 18
2) 양육에에 대한 이론적 이해 ····· 19
3) 스포츠양육의 이해 ····· 25

3. 유소년 스포츠클럽에 대한 이해 ····· 27
1) 유소년 스포츠클럽의 개념 ····· 27
2) 유소년 스포츠클럽의 이해 ····· 31
3) 유소년 스포츠클럽과 PYD 모형과의 관계 ····· 34

Ⅲ. 연구방법 ····· 37
1. 연구방법의 선정 ····· 37
2. 연구 참여자 ····· 38
3. 자료수집 ····· 40
4. 자료분석 ····· 43
5. 자료의 진실성 검증 ····· 43

6. 윤리적 고려 ····· 43

Ⅳ. 결과 ····· 45
1. 아버지들이 인식하는 아버지다움 ····· 45
1) 유년시절 아버지와의 관계: 기억의 잔상 ····· 45
2) 아내와의 관계: 좋은 남편 ····· 50
3) 자녀와의 관계: 함께하는 아버지 ····· 55

2. 스포츠양육을 통한 아버지다움의 실천 ····· 59
1) 삶의 전수: 인생과 경험 ····· 59
2) 소통의 확장: 남자들의 캐치볼 ····· 66
3) 잃어버린 아버지다움 찾기: 아버지들의 성장과 변화 ····· 73

3. 아버지의 스포츠양육이 지니는 함의 ····· 79
1) 놀아주는 것: 좋은 아버지담론의 한계와 적극적 양육 실천 ····· 79
2) 전통적 젠더 역할 재생산: 스포츠양육을 통한 아버지다움 실천 ····· 85

Ⅴ. 논의 ····· 90
1. 아버지들이 인식하는 아버지다움 ····· 90
2. 스포츠양육을 통한 아버지다움의 실천 ····· 92
3. 아버지의 스포츠양육이 지니는 함의 ····· 94

Ⅵ. 결론 및 제언 ····· 96
1. 결론 ····· 96
2. 제언 ····· 97

참고문헌 ····· 98
Abstract ····· 108

표 목차

표 1. 조혼인율 및 조이혼율의 변화 ····· 9
표 2. 학교 체육활동의 3대 영역 ····· 27
표 3.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계획 ····· 28
표 4. 스포츠클럽 비교 ····· 29

그림 목차

그림 1. 가족 구성원의 변화 ····· 8
그림 2. 경제활동인구조사 ····· 10
그림 3. The Fatheerhood-Masculinity Model ····· 14
그림 4. Symonds(1949)의 양육태도 모형 ····· 19
그림 5. Schaefer(1959)의 양육태도 모형 ····· 21
그림 6. Maccoby와 Martin(1983)의 양육태도 모형 ····· 22
그림 7. Daring과 Steinberg(1993)의 양육태도 모형 ····· 24
그림 8. Postive Youth Devlopment Model ····· 35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사회가 지난 수십년 간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가족 또한 변화 하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 영향과 1997년 IMF 경제위기는 ‘사회적인 것(the social)’의 보호망을 해체시키면서 개인의 삶의 변화를 야기하였고(조윤경, 2008),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한국사회의 위기를 ‘위험사회’, ‘격차사회’, ‘피로사회’ 등으로 설명되면서, 사회적 위기는 동시에 ‘가족의 위기’로 인식되었다(신경아, 2014).

가족의 위기는 가장의 실직, 소득 감소 등 줄어든 가계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로 이어졌고(김영미, 2012), 그 결과 가족 내 성 역할 구분의 약화, 즉 기존의 아버지에 관한 담론인 가족의 생계부양자(breadwinners)로서의 역할의 약화로 이어졌다. 이는 곧 사회·문화적으로 아버지다움(fatherhood)에 대한 의미를 불확실한 상태로 만들면서 아버지의 역할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Coakley, 2006).

이러한 변화는 최근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아빠, 어디가?>(MBC-TV, 2013), <슈퍼맨이 돌아왔다>(KBS-TV, 2014)에서는 오늘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 속에서의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보여주고 있으며, <아버지의 성 부성(父性)>(EBS-TV, 2013), <파더쇼크>(EBS-TV, 2013) 등은 아버지와 관련된 양육 이론을 소개하고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제도적 지원을 탐색하였다. 이러한 미디어의 영향은 오늘날의 아버지가 이전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생계부양자에서 ‘친구같은 아버지’, ‘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 등의 모습으로 변화된 ‘좋은 아버지(good father)’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이동욱, 2014).

하지만 ‘좋은 아버지(good father)’ 담론에서 요구되는 오늘날의 ‘아버지다움(fatherhood)’과 ‘아버지역할하기(fathering)’는 현실적으로 아버

지들에게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남성의 부성경험과 갈등에 관한 연구(2008)에 따르면 한국의 아버지들은 과거 부모세대와는 달리 가족 부양자의 역할과 동시에 친구 같은 아버지를 희망하고 있지만, 일상에서는 여전히 양육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감이나 양육에 대한 생각은 아내 의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자녀가 고민이 있을 경우 아버지와 상담한다고 응답한 자녀의 비율은 3.0%라는 수치는 오늘날의 아버지들이 '친구같은 아버지', '가정적으로 자상한 아버지'를 바람직한 모습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변화하는 아버지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청소년 통계, 2011).

이와 관련하여 아버지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며(LaRossa, 1988), 이는 사회변화에 따른 아버지다움의 변화에 관한 연구(이동욱, 2014; 조윤경, 2008; Cabrera, Tamis-LeMonda, Bradley, Hofferth & Lamb, 2000; Barclay & Lupton, 1999), 아버지들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변화와 갈등에 관한 연구(양소난, 2013; 나성은, 2015; 백진아, 2009, 김혜경, 2002), 시대적 변화와 젠더관계의 변화에 주목한 연구(신경아, 2014; 나성은, 2014, 정진성, 2009; 조은, 2008; 조은, 은기수, 2007) 등을 통해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아버지다움의 연구에서 구체적인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여전히 미흡한 편이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이전의 논의들 중 대부분이 여성 중심의 관점(feminism)에서 논의되어 온 사실과 서구의 새로운 아버지 논의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렵다는 논의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관점에서 바라본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양소남, 2013, 백진아, 2009; 정진성, 2009).

새로운 아버지와 관련된 사회적 기대와 연구의 한 맥락으로서 '스포츠를 통한 아버지다움과 아버지역할하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Kay, 2007). 이러한 사실은 2006년 *Leisure Studies* 저널의 특별호에서 '스포츠 혹은 여가'와 '아버지다움'을 주제로 발간한 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Kay(2006)는 이전의 가족, 젠더, 여가와 관련된 연구에서 아버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는 점을 밝히면서, 아버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

였다. 또한 스포츠가 지난 50여년간 아버지들이게 젠더 이데올리기에 대한 부담없이 자연스럽게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Coakly, 2006), 이러한 사실은 스포츠가 아버지에게 가족간의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고, 아버지 다움을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으로 보고되고 있다 (Harrington, 2006).

이처럼 아버지와 스포츠의 관계는 오늘날의 아버지다움(fatherhood)과 아버지역할하기(fathering)에 있어서 중요한 공간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버지는 연구에서 '들리지 않는 목소리(inaudible voice)'로 표현될 만큼 연구가 미진하였다(Hutchinson, JKardos, Scherphorn, Tung, Yang & Yarnal, 2002). 이처럼 스포츠 공간과 아버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스포츠를 통한 아버지역할하기와 아버지다움의 의미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내 연구도 마찬가지로 스포츠를 통한 아버지다움과 아버지역할하기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서재철, 양광희, 2016). 다만 스포츠에서 부모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부모가 자녀의 스포츠로의 사회화에 영향을 주는 연구(김현주, 2011; 이에리사, 1997; 정영린, 김홍설, 1996), 부모의 양육이 자녀의 스포츠 참여와의 관계(맹이섭, 황미경, 2010; 조영제, 2001; 권민혁, 1994), 부모 지지가 운동선수들에게 미치는 영향(성창훈, 2011; 이광호, 권승민, 김성훈, 2009)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기존의 연구들은 스포츠에서 부모에 대한 중요성을 증대 시키는데 큰 일조를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스포츠에서 나타나는 아버지다움,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아버지다움과 스포츠와의 관계에 있어서 유소년스포츠클럽이 의미있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Coakly, 2006). 이는 학교스포츠클럽, 정과체육의 경우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교사와의 관계가 중요시 되는 것에 비하여 유소년스포츠클럽은 상대적으로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시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소년스포츠클럽의 참여자는 자녀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유소년스포츠클럽에 등록시키고, 코치/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재정적 지원을 비롯하여 자녀의 시간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소년스포츠에서 부모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Green & Chalip, 1998; Brustad, 1993).

특히 오늘날 유소년스포츠클럽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자녀의 스포츠참여가 긍정적인 성격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오랜 믿음과 더불어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의 양육 전략 등으로 인하여 부모들이 우선적으로 선호하는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Coakly, 2011).

현재 유소년 스포츠클럽과 관련된 연구들은 프로그램의 적절성과 관련된 연구(Gould & Carson, 2008; Lerner, Lerner, Almerigi, Theokas, Naudeau, Gestsdottir & Von, 2005), 스포츠클럽 참여자자들의 긍정적 발달과 관련된 연구(Holt, 2008; Larson, 2000), 스포츠클럽에서의 부모에 관한 연구(구희영, 2016; Holt & Knight, 2014; Horn & Horn, 2007)등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유소년클럽과 관련한 참여자 중심의 연구가 대부분이며, 유소년스포츠클럽을 구성하는 부모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양육경험과 양육실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현재의 진행된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아버지들의 ‘아버지다움’과 ‘아버지역할하기’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미진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를 통해서 오늘날 아버지다움의 의미와 역할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재구성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유소년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아버지들이 ‘아버지다움’을 인식하는지 살펴보고, 유소스포츠양육을 통한 ‘아버지역할’과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오늘날 아버지들의 스포츠양육 참여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들이 인식하는 아버지다움을 탐색하고, 아버지들이 스포츠양육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버지들의 스포츠양육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 확장하고자 한다.

3. 연구 문제

첫째, 스포츠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들이 인식하는 아버지다움은 무엇인가?

둘째, 아버지들이 인식하는 아버지다움은 스포츠양육을 통해 어떻게 실천되는가?

셋째, 스포츠양육을 통한 아버지다움 실천의 사회적 의미는 무엇인가?

4.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양육

스포츠양육은 '스포츠'와 '양육'의 합성어로써 스포츠를 통한 양육(parenting through sport)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스포츠양육은 스포츠활동과 관련된 아버지의 양육을 의미하며, 아버지의 태도, 신념, 가치, 행동 등이 포함된다.

2) 아버지다움(fatherhood)

아버지다움(fatherhood)은 아버지다움, 아버지역할하기, 아버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아버지다움이란 아버지됨과 관련한 공적 의미로 사용되며, 아버지 역할하기는 양육을 하는 실질적인 행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생물학적 혹은 사회적인 아버지가 자녀와 갖는 관계를 의미한다(Morgan, 2004). 본 연구에서 어버지다움은 공적 의미, 즉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아버지와 그 역할을 의미한다.

3) 유소년스포츠클럽

일반적으로 유소년 스포츠(youth sport)는 조직화된 신체활동을 전부 일컫는 행위로 어린이와 유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훈련과 시합 등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윤민영, 2002). 본 연구에서 유소년스포츠클럽은 유소년 스포츠(youth sport)의 일환으로 유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훈련과 시합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주는 생활체육 기반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현대사회의 가족과 아버지

1) 가족의 변화와 아버지다움(fatherhood)의 이해

아버지는 문화적 산물이며, 가족 구성원이다. 이러한 아버지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오늘날의 변화하는 가족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사회·문화적으로 부여된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오늘날 사회적·시대적 변화에 따라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단위인 가족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이는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형태의 다양화, 가족 기능의 변화, 가족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은경, 2010).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가족의 개념을 논의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사회학 분야에서 일반적 혹은 보편적인 가족에 대한 개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대한 개념은 자녀 양육에 책임을 지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이들의 친인척들이 연계된 무리의 사람들로 정의할 수 있다(Giddens & Sutton, 2013). 하지만, 이러한 개념을 사용하기에 앞서 사회제도의 하나로써 '가족'이라는 개념이 다양성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 중 Morgan(1999) 이 제안한 '가족 실천(family practices)'이란 개념은 가족을 이해하기 위해 유용할 수 있는데, 가족 실천은 가족원들이 '가족생활'로 인지한 모든 행동, 즉 가족을 인간 상호작용 관점에서 가족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가족에 대한 개념적 논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가족이 갖는 그 의미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김혜영, 2016). 실제로 사회변화 속에서 가족은 개인을 보호하는 기제로 작동해왔으며(김수영, 2001), 개인의 가치, 규범에 대한 준거의 기능을 제공하였다.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개인의 삶의 질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정기선, 김혜영, 2013).

1990년대 한국사회는 '위험사회', '가족의 위기'로 표현되면서 역동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포스트포드주의와 더불어 새로운 산업이 등장, 생산조직 및 고용시장의 불안 등을 우려하는 시대가 되었고, 1997년 IMF 경제위기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사회의 가족의 삶에 투영되어 가족의 변화를 야기하였고(김혜영, 2016), 가부장적 질서 혹은 남성 생계부양자를 기반의 가족주의는 경제위기 기점으로 점차 그 적실성을 상실하게 되었다(홍찬숙,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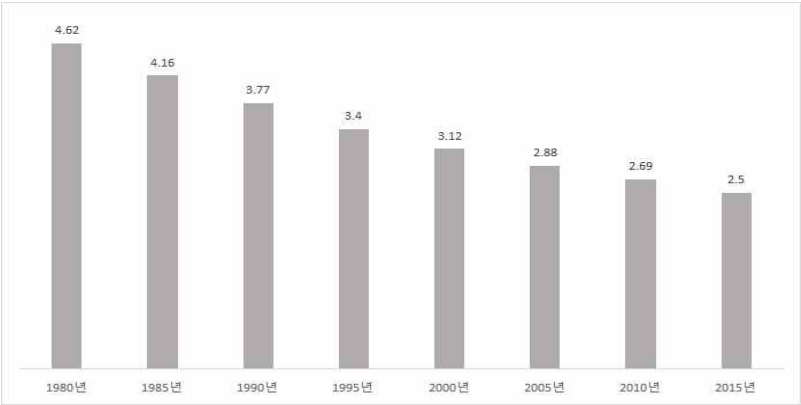

그림 1. 가족 구성원의 변화(통계청, 2015 재구성)

한국의 가족의 변화는 가구형태의 변화, 혼인 감소 및 이혼의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통계청, 2015). 먼저 가구의 형태를 살펴보면, [그림1]에서 나타난 것처럼 한국 사회의 평균 가구원수는 1990년 3.77명, 1995년 3.4명, 2000년 3.12명, 2005년 2.88명, 2010년 2.69명, 2015년 2.5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평균 가구원수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 및 가구구성의 변화, 즉 가족의 형태가 핵가족화 및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평균 가구원수의 감소는 OECD 27개국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네 번째로 높은 나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독일 2.00, 영국 2.30명, 일본 2.33명, 미국 2.53명 등 OECD 주요국가와 비교

했을 때 한국의 가구원 수의 감소 추세가 예외적인 경우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족 구조의 변화, 특히 핵가족으로의 변화는 경쟁사회에서 지친 남성들의 안식처로 인식되어왔지만, 한편으로는 가족에서의 친밀한 관계를 중시하는 것과 달리 남성의 직장에서의 헌신으로 인해 자녀와의 관계와 일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이동옥, 2014).

다음으로 한국 가족의 혼인 감소 및 이혼의 증가로 설명할 수 있다. 가족의 구성은 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통계청(2015)에 따르면 혼인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혼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가족의 탄생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가족이 해체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오늘날의 '가족의 위기' 혹은 '가족 해체'로 해석 할 수 있다.

표 1. 조혼인율 및 조이혼율의 변화(통계청, 2015 재구성)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조혼인율	10.6	9.4	9.3	8.7	7	6.5	6.5	5.9
조이혼율	0.6	0.9	1.1	1.5	2.5	2.6	2.3	2.1

(조혼인율·조이혼율: 인구 1천 명당 건)

마지막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이전의 근대성에 근간을 이루는 노동환경은 가정과 일을 구분 하면서, 남성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가족과 분리되어 직장에서 보냈다. 이는 공·사적 영역분리로 설명되는데, 이는 곧 이성과 감정 그리고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형성하게 되었다. 즉 남성들은 생계부양자의 역할로 설명되었으며, 여성은 가정과 자녀를 돌보는 역할로 인식되었다(김영란, 2004). 하지만, <그림2> 지난 1995년

부터 2015년까지의 여성경제활동 인구를 살펴보면 생계부양자의 역할로서의 아버지와 가정에서의 아내의 역할 구분이 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세계시장주의의 확대로 인한 기업 경쟁의 심화와 더불어 한국사회의 1997년 IMF 경제위기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은 남성들의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을 위협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가족의 경제적 위기는 가장의 실직, 소득 감소 등으로 줄어든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로 이어지게 되었다(김영미,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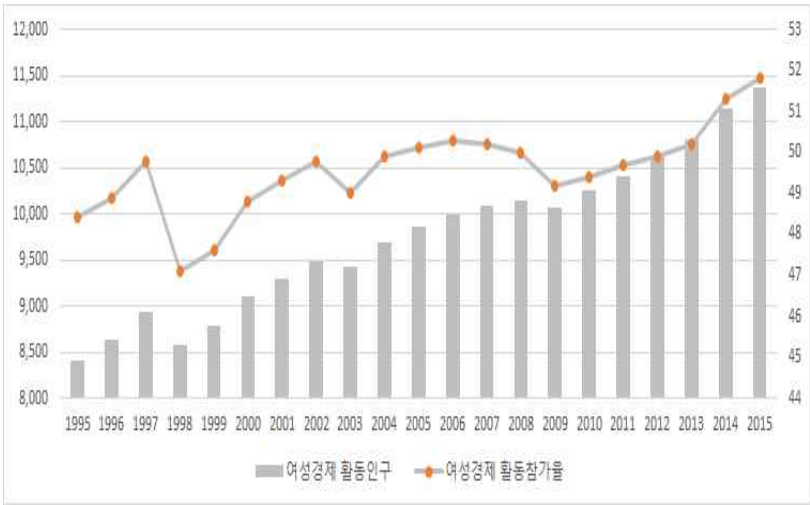

그림 2.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2015 재구성)

이러한 한국사회에서의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른 가족의 변화는 지금까지의 남성역할에 대한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게 되었다(양소난, 2013; 나성은, 2015; 백진아, 2009; 김혜경, 2002).

이러한 아버지의 인식의 변화는 최근 <아빠, 어디가?>(MBC-TV, 2013), <슈퍼맨이 돌아왔다>(KBS-TV, 2014)를 통해 아버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으며, <아버지의 성 부성(父性)>(EBS-TV, 2013), <파더쇼크>(EBS-TV, 2013) 등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부성과 돌봄의 의미를 조명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의 미디어가 비쳐주는 아버지다움(fatherhood)과 아버지역할하기(fathering)에 대한 영향은 '친구같은 아버

지’, ‘자녀를 돌보는 아버지’ 등과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면서 사회적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나성은, 2014).

2) 아버지다움(fatherhood)과 남성성(masculinity)의 이해

대다수의 남성들은 삶의 어느 한 시점에서 아버지가 되고, 이러한 이유로 아버지다움(fatherhood)은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Palkoviz, 2002).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버지다움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개념화하여 설명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이유로 아버지다움을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 고에서는 아버지다움을 구성하는 개념과 아버지다움이 아버지들의 양육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아버지다움(fatherhood)은 아버지다움(fatherhood), 아버지역할하기(fathering), 아버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이에 각각의 개념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아버지다움이란 아버지됨과 관련한 공적 의미로 사용되며, 아버지역할하기는 양육을 하는 실질적인 행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생물학적 혹은 사회적인 아버지가 자녀와 갖는 관계를 의미한다(Morgan, 2004).

이러한 개념적 구분은 아버지다움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특히 기존의 ‘생계부양의 역할(breadwinning)’을 하는 아버지로부터 ‘정서적 양육자(emotional nurturer)’로 변화된 아버지를 이해하는데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였다.

아버지다움의 개념은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른 가족관계의 변화와 아버지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디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아버지와 양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에서 ‘자녀와 친밀한 아버지’, ‘자녀를 돌보는 아버지’ 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전 세대의 아버지들과 차별화된 새로운 아버지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나성은, 2014).

20세기 동안 좋은 아버지는 좋은 생계유지자(breadwinners)였다. 물론 문

화적·사회적인 배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는 있지만, 아버지다움(fatherhood)에 대한 시각은 산업화된 사회에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 보다는 가족의 생계에 대한 의무와 책임으로 강조되면서 아버지들은 점차 가족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다(Coakley, 2006).

서구 사회에서는 1960년대에 “새로운 아버지” 담론이 등장하면서 오늘날의 좋은아버지(good father) 담론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취업 증가와 같은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가족 생활의 변화는 이전의 전통적 관점에서의 성별분업에서의 아버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였다(나성은, 2014).

이러한 변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아버지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맥락도 변화하고 있다. 기존 한국사회에서 아버지는 가족의 수장으로 권위를 지니고, 자녀양육에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위상에 적합한 행동을 통해서 가족을 이끄는 것을 주 역할로 여겨왔다(Yang, 2001). 따라서 과거에 자녀양육의 주된 책임은 어머니에게 있으며, 아버지는 자녀양육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적었다. 하지만 사회적변화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한 자녀양육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자녀양육에 있어서 아버지들의 역할변화와 관련된 연구(양소난, 2013; 나성은, 2015; 백진아, 2009, 김혜경, 2002)와 시대적 변화와 젠더관계의 변화에 주목한 연구(신경아, 2014; 나성은, 2014, 정진성, 2009; 조은, 2008; 조은, 은기수, 2007)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아버지다움(fatherhood)과 남성성(masculinity)은 [그림3]과 같은 이론적 프레임을 통해서 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모형은 부모의 행동과 정체성으로 아버지다움과 부모의 지위로부터의 아버지다움을 구분하고 있다. 사실 아버지다움과 남성성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러한 모형을 통해서 개념적으로 아버지다움과 남성성 그리고 자녀와 아버지가 받는 영향에 대해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Marsiglio & Pleck, 2005; Lamb, 1996).

아버지다움과 남성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Fatherhood-Masculinity Model을 통해 보다 광의의 차원에서 아버지다움과 남성성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가 자녀와 아버지 스스로에게 주는 영향을 이해하

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아버지다움(fatherhood)이라는 개념은 두가지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먼저 많은 연구자들은 부모의 상태(parental status)로서 아버지다움을 사용한다. 이것은 좁은 의미로는 생물학적인 아버지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사회적 아버지(social fathers)를 포함한다. 부모의 상태에서는 자녀의 수, 자녀 출생 시기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된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 아버지다움과 다른 역할 수행과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되는 시기, 즉 결혼을 하는 시기, 자녀를 갖는 시기 등이 아버지다움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Astone, Dariotis, Sonpmemstein, Paecl. & Hynes, 2010).

또한 가족학 분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학자들의 연구에서는 아버지다움은 아버지역할하기(fathering)의 의미로 아버지의 양육과 관련하여 개념을 사용되고 있다. 아버지역할하기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관련된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Lamb, pleck, Charnov, & Levine, 1985), 관련 연구에서는 아버지들의 양육 참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아버지들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 시간, 아버지들의 역할에서의 자상함과 통제 등과 같은 요인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아버지다움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다움을 의미를 아버지의 상태와 양육의 관점에서 보고자 한다.

아버지다움, 아버지역할하기, 아버지에 대한 개념적 이해는 어머니다움(motherhood)와 다르게 나타나는 남성성(masculinity)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남성성(masculinity)이란 개념은 앞서 살펴본 아버지다움(fatherhood)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먼저 남성성 상태(male gender status)는 생물학적 관점에서 남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 다른 의미의 남성성은 사회구성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남성성으로 사회적으로 부여된 아버지를 의미한다.

남성성 경향(masculinity orientation)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남성성의 정도를 나타내는데, 이는 같은 남성일지라도, 보다 더 남성적인 것을 추구하는 성향과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남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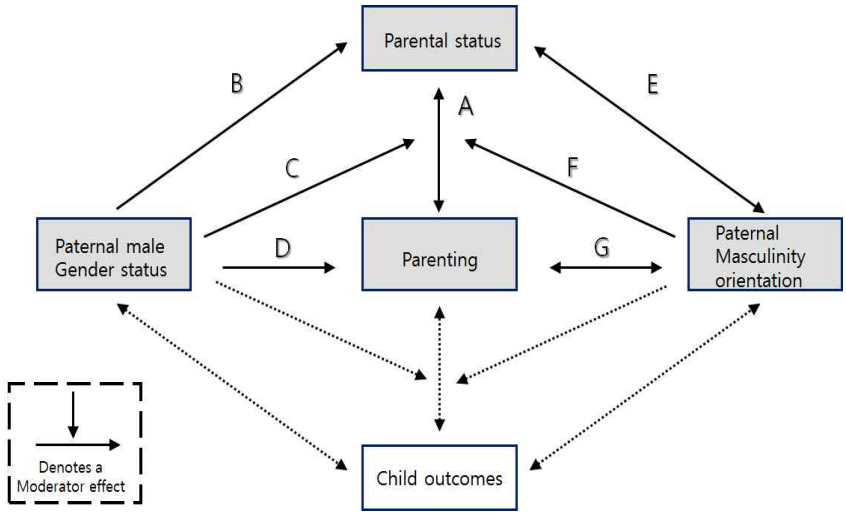

그림 3. The Fatherhood-Masculinity Model (Lamb, 2009 재구성)

앞서 논의된 개념들을 통해서 아버지와 남성성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그림 3]에서 A는 아버지의 상태와 양육과의 관계에 대한 관계 설명한다. 남성이 생물학적 혹은 사회적인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양육(parenting)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부모가 된다는 점은 남성의 정체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화를 야기한다. 또한 아버지가 되는 시기, 자녀의 수, 자녀의 출생 시기 등은 양육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양육에 대한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남성성 상태(paternal male gender status)가 부모의 상태(B)와 양육(D)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선 생물학적 관점 혹은 사회구성주의 관점에서 아버지는 남성이 여성보다 늦게 결혼을 하고, 여성이 자녀를 갖는 시기보다 더 늦은 시기에 자녀를 갖을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할 때, 남성의 결혼시기, 자녀의 수 등 부모의 상태(B)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예를들어 어린시기에 아버지가 되는 경우, 자녀의 수와 시기 등은 부모가 된 아버지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면서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인식과 참여에 영

향을 줄 수 있다.

한편, 아버지의 남성성의 경향(paternal masculinity orientation)은 양육(G)과 부모의 상태(parental status)에 영향을 준다. 남성성의 경향은 얼마나 남성적인가와 관련되는데 이는 남성의 성 상태(paternal male gender status)와 다르게 변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들어 첫 번째 자녀를 갖는 것은 남자들의 아버지에 대한 정체성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남성성 경향은 부모의 상태와 상호적인 관계를 갖는다. 또한 아버지의 남성성의 정도는 아버지의 양육 참가와 양육에서의 아버지의 역할 등 양육(parenting)에 영향을 미치며, 양육을 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남성성 또한 영향을 받는다.

3) 아버지와 스포츠의 관계

새로운 아버지다움의 등장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일정한 소득을 유지하고, 일정한 여가시간을 향유할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된다(김혜영, 2008).

최근 아버지와 관련된 연구에서 한국의 젊은 아버지들은 일과 가정의 영역에서 갈등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는 오늘날 사회적 변화와 함께 가족의 변화, 즉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아버지에 대한 가사와 양육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오늘날의 아버지들에게 이전과 다른 아버지다움과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변화된 아버지와 관련하여, 스포츠는 아버지에게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스포츠 혹은 여가’와 ‘아버지다움’을 주제로 발간한 2006년 *Leisure Studies* 저널의 특별호에서 아버지와 스포츠와 관련된 연구는 그동안 여가와 가족 영역에 대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관련된 연구와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다(Kay, 2006). 가정의 변화는 아버지의 생계부양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아버지들의 적극적인 양육 참여로 이어지고 있는데, 스포츠는 아버지의 아버지들의 책임과 의무를 충

족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로 여겨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스포츠는 아버지에게 자녀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수단으로 이해되며, 이를 통해 자녀와 함께 활동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스포츠활동을 통해 공유된 경험은 자녀와 가까워질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의 아버지에게 스포츠는 전략적인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Kay, 2007).

같은 맥락에서 Coakely(2006)는 사회적 변화에 따른 아버지다움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면서, 오늘날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겪는 딜레마에 대한 다양한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소년 스포츠(youth sport)는 아버지들에게 다양한 양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아버지들이 만족하는 공간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자녀의 스포츠활동에서 부모의 헌신은 자녀가 스포츠에 참여하고 지속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자녀의 스포츠클럽참여에서 부모가 지불하는 비용, 자녀의 참여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에너지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부모의 헌신은 자녀가 보다 더 성과위주의 훈련을 하는 경우 혹은 경쟁적 스포츠에 참여하는 경우 부모의 역할은 더 중요해진다.

한편, Harrington(2006)은 아버지와 여가생활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기존 여성학자(feminist)들에게 제기된 주장은 여성들의 삶의 공적・사적 영역에서 남성의 특권과 지배의 결과로 여성들의 여가활동은 종속적인 것으로 설명하였다. 하지만, 여가는 아버지들이 가족과 연결될 수 있는 아버지들을 위한 장소로 설명하면서 아버지들에게 스포츠와 여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사회・문화적 변화 속에서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아버지와 스포츠의 관계를 보다 중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내에서 아버지와 스포츠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미진하며, 이에 변화된 아버지에 대한 경험적 이해와 더불어 한국의 아버지들이 변화된 기대를 어떠한 방식으로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에서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조은(2008)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한국 가족정치가 작동하는 방식의 분석을 통해서 IMF 경제 위기 이후 가족 영역의 위기담론을 아버지 위기 담론과 저출산 담론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백진아(2009)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구조의 형태와 규범 등의 변화와

관련하여 기혼남성의 가족경험에 주목하여 한국 가족에서 아버지들과 관련된 문제들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국내의 연구에서는 스포츠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아버지의 역할의 변화한 사회적·문화적 맥락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주로 이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아버지의 변화된 역할에 대한 실천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그리고 스포츠가 아버지에게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스포츠양육의 이해

1) 양육의 개념

스포츠양육은 '스포츠'와 '양육'의 합성어로써 스포츠를 통한 양육(parenting through sport)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스포츠양육을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양육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구희영, 2016).

양육은 학자 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양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때문에 양육을 이해하기 위해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양육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태도나 행동을 의미한다. 특히 부모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격, 행동 정서, 인지 등 인간 발달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Baldwin, Mclntyre, & Hardaway, 2007).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업성취(Lamborn, Mounts, Steinberg, & Dornbusch, 1991), 낙관성(Baldwin, Mclntyre, & Hardaway, 2007), 자신감(Strage & Brandt, 1999), 동기(Gonzalez & Wolters, 2006) 등의 주요 변인이 된다. 또한 부모 양육태도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 문화적 배경 등과 깊은 관계를 가지며,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부모 양육태도를 구성하기 때문에 자녀가 어떤 원인에 의해 생기는 결과는 여러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Gadeyne, Ghesquière, & Onghena, 2004). 이러한 양육태도는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Becker(1964)는 부모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나타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태도 및 영향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양육태도는 자녀의 인지적·정의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Hurlock(1978)은 양육태도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대우와 자녀를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이는 다시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호관계 속에서 양육태도는 부모와 자녀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리고 Belsky(1984)는

양육태도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보았다. 부모 개인의 성격과 같은 심리적 특성과 아동개인의 특성,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가 존재하는 사회적 맥락인 부부 관계, 사회관계망, 부모의 직업적 경험과 같은 맥락적 변인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김신정, 김영희, 2007; 권이종, 1996, 권민혁, 1994).

2) 양육에 대한 이론적 이해

일반적으로 양육에 대한 접근은 차원론적 그리고 유형론적 접근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차원론적 접근의 대표적은 학자는 Symonds(1949), Schaefer(1959), Becker(1964)가 있으며, 서로 다른 양육태도를 측정 혹은 분석하여 양육태도의 주요 요인들이 자녀의 발달 및 적응에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유형론적 접근은 자녀양육의 보편적인 방식 또는 유형, 양육태도의 분위기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양육환경을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Baumrind,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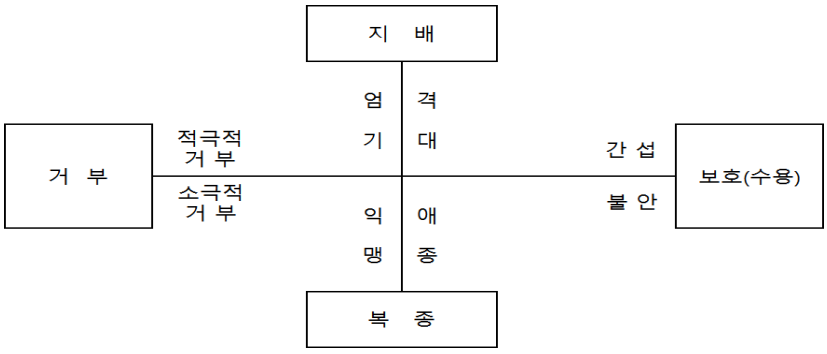

그림 4. Symonds(1949)의 양육태도 모형

Symonds(1949)는 차원론적 접근에서 부모 양육태도를 최초로 체계화함으로써 부모-자녀의 관계를 유형화 하면서 거부-수용(rejection-acceptance)과 지

배-복종(dominance-submission)의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그는 부모 양육태도가 지배적이거나 거부적이지 않으며, 과보호적과 복종적인 중간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Schaefer(1959)는 Symonds의 모형이 양육태도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정상적인 범주의 양육태도를 기반으로 PARI(Parental Attitude Research Instrument)를 개발하였다.

Schaefer(1959)의 경우에는 양육태도를 '자율-통제'와 '애정-적대'로 분류하여 설명하였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애정적-자율적 태도의 경우 부모와 자녀가 정서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갖고, 부모가 자녀에게 높은 관심과 자유적, 협동적, 수용적 태도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부모는 자녀에게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대화를 하고,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며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피한다. 따라서 부모의 영향은 자녀가 스스로를 존중하고, 타인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일에 책임감이 높고, 사교적이며 협동적인 특징을 갖는다.

둘째, 애정적-통제적 태도는 자녀에게 애정을 주는 것과 동시에 자녀의 행동에 제약을 주는 부모의 태도로 설명된다. 이러한 부모 양육태도는 자녀의 어려움에 대해 부모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태도는 부모로 하여금 자녀의 행동을 결정하게 하며 자녀가 독립적으로 행동을 할 때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 또한 애정적-통제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새로운 기회를 축소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애정적-자율적 양육태도와 비교하여 부모에게 더욱 의존적이며 창의성, 사교성 등이 부족해 진다는 지적이 있다.

셋째, 적대적-자율적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수용하지 못하면서 자녀의 행동을 방임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를 가진 부모는 자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소홀히 여기며, 냉담과 무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넷째, 적대적-통제적 태도는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애정적-자율적 부모 양육태도와는 반대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경우에는 자녀의 행동에 심리적인 통제 혹은 처벌을 통해서 엄격하게 규제한다. 이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자아에 대한 분노가 발생하여 내면화된 갈등, 고통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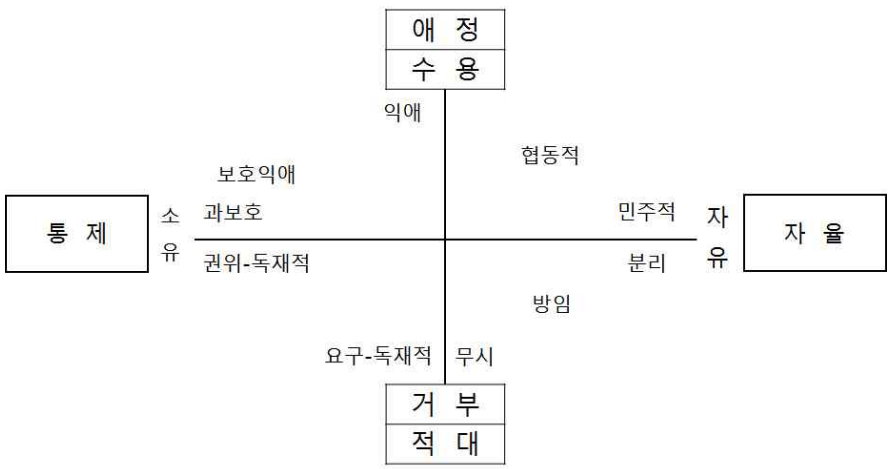

그림 5. Schaefer(1959)의 양육태도 모형

Becker(1964) 경우에는 적대-온정, 과보호-방임, 적대-온정 3개의 차원을 통해 민주적, 관용적, 무관심, 신경과민적, 권위주의, 과보호, 엄격한 통제, 조직 효율성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Baumrind(1971)는 부모 양육행동을 수용과 개입방식에 따라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허용적(permissive), 민주적(authoritative)유형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분류는 부모의 행동영역으로 통제, 온정으로 측정하였다. Schaefer(1959)의 통제개념과는 달리 Baumrind의 부모의 통제는 자녀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 처벌적 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온정(Nurturance)은 보호하는 기능으로써 자녀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신체적 정서적으로 돌보기 위한 부모의 태도와 행동을 말한다.

권위주의적 양육(authoritarian parenting)은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요구를 하지만 양육 반응성은 낮은 형태로 자녀가 부모의 명령을 순종적으로 따르

기를 기대한다. 부모들은 잘 명시된 규칙과 함께 조직되고 준비된 환경을 아이들에게 제공하지만, 아이들에게 따뜻함은 적게 보여준다(Baumrind, 1971).

권위적 양육(authoritative parenting)은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요구를 하면서도 높은 반응성을 함께 보이는 부모형태이다. 권위적 양육태도를 가진 부모는 자녀의 행동을 지도할 때 정확한 기준을 두며, 처벌과 같은 훈육방법을 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녀는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고, 자기조절을 할 줄 알며 협동적일 뿐만 아니라 자기주장을 할 수 있게 되길 원한다(Baumrind, 1971).

허용적 양육(permissive-indulgent parenting)의 경우에는 자녀가 부모에게 바라는 것과 비교하여 부모는 높은 반응을 하는 것을 말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관대하고 성숙한 행동을 요구하지 않으며, 직면을 피한다. 이러한 유형의 부모는 따뜻하게 느껴지지만 아이들에게 어떠한 지침을 주지 않는다. 허용적 양육태도를 가진 부모들은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해야 한다고 믿으며 그들의 자율성을 전적으로 인정한다(Baumrind, 1971). 즉 허용적 양육방식은 자녀가 요구하는 것 보다 더 잘 반응하는 부모 양육태도로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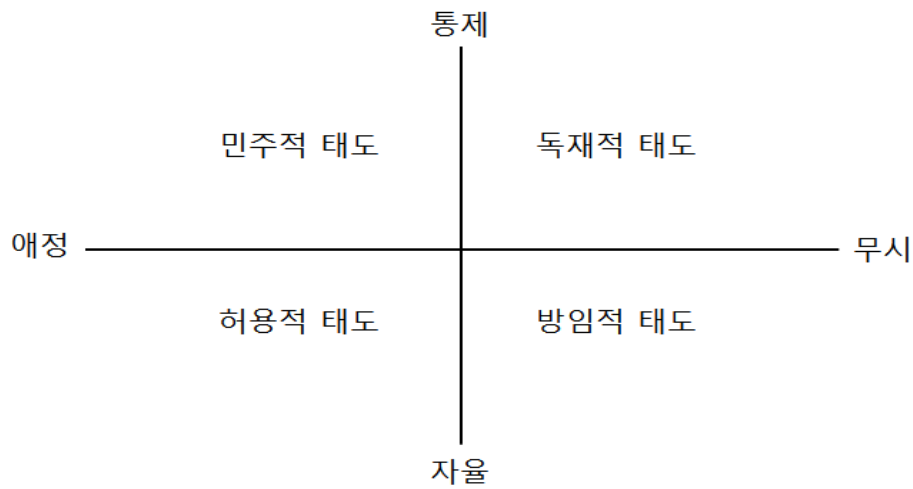

그림 6. Maccoby와 Martin(1983)의 양육태도 모형

마지막으로 Maccoby와 Martin(1983)은 [그림 6]과 같이 방임적 유형을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방임적 양육(permissive-neglectful parenting)은 자녀에게 무관심하고, 부모의 반응성이 낮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적게 헌신하는 부모로 설명할 수 있다.

한편, Darling과 Steinberg(1993)에 따르면 부모의 역할은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부모의 역할은 '양육목표(parental goals)', '양육실제(parenting practices)', 그리고 양육방식(parenting style)로 구분되어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양육목표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신념체계로써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양육실제(parenting practices) 이나 양육방식(parenting style)과 같은 행동적 차원을 통해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양육실제는 부모의 사회화 목표 따라 정의되는 목적 지향적 행동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지향하는 목표가 자녀의 자존감 발달이라면 자녀의 학교, 스포츠클럽 등의 활동에 참관하고, 자녀와 대화를 하는 것 등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양육실제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양육방식이란 양육실제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목표와 가치에 영향을 받지만, 특정한 사회화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부모의 행동이 표현되는 정서적 분위기를 구성하는 부모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Darling & Steinberg, 1993)

Darling & Steinberg에 따르면 양육방식과 양육실제는 부분적으로 양육목표에 영향을 받지만, 이 둘의 관계는 서로 다른 과정을 통해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특정한 메시지를 포함한 양육실제는 [그림7]에서 나타난 것처럼 자녀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양육방식의 경우 부모의 양육실제의 영향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맥락에서 이해됨으로써 자녀의 발달에는 간접적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민주적인 부모는 자녀의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스포츠클럽에 참여한다면 자녀의 견해를 존중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줄 것이다. 이에 자녀는 부모의 노력에 부응하려하기 때문에

부모의 스포츠클럽 참여는 자신감을 높이는데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반면 권위적인 부모는 동일한 목표를 가졌다하더라도 강압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아동이 부모의 행동에 대해 반발심을 가지게 되고 그 결과 긍정적인 효과는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자녀에게 미치는 부모의 영향에 대해서 Darling 과 Steinberg가 제시한 모델은 자녀에게 미치는 부모의 영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 주었으며, 부모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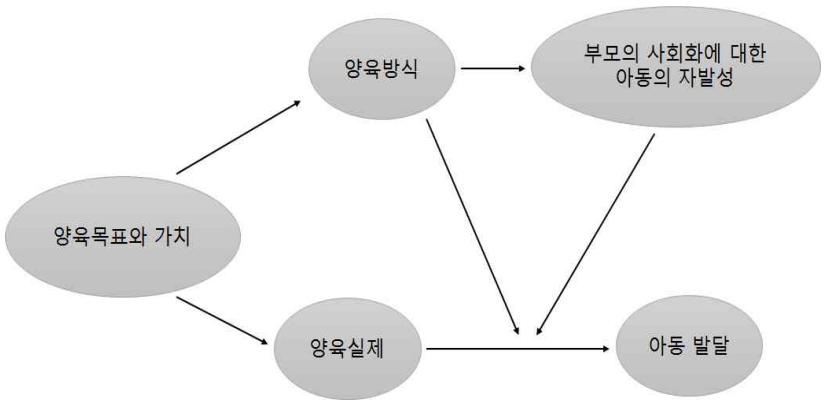

그림 7. Darling 과 Steinberg(1993) 양육태도 모형

3) 스포츠양육의 이해

스포츠양육은 '스포츠'와 '양육'의 합성어로써 스포츠를 통한 양육(Parenting through sport)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구희영(2016)은 양육의 관점을 통해서 스포츠양육을 개념화하였으며, 이에 스포츠양육은 스포츠와 관련된 부모의 신념, 태도, 행동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부모에 대한 연구는 자녀에게 부모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유소년스포츠클럽의 경우 자녀의 참여를 통해 얻는 긍정적 측면에서 부모를 블랙박스(black box)로 비유하며, 부모가 자녀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혹은 부모가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Larson, 2000).

부모의 행동, 신념, 가치 등은 자녀의 스포츠참가, 지속, 중단에 이르기까지 자녀의 스포츠사회화 전 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유소년스포츠와 관련하여 부모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하는 주체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스포츠프로그램에 자녀를 등록시키고, 자녀를 데리고 가는 것, 등록비를 지불하는 것 등 자녀의 스포츠로의 사회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중요성은 부모는 자녀의 스포츠활동을 지속시키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실질적인 구매자(purchasers)'로 부모의 역할을 비유하고 있는데(Green & Chalip, 1998), 이러한 측면은 자녀의 스포츠참가 지속이 부모의 기대와 만족에 기인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Brustad, 1993).

또한 부모의 행동과 피드백은 자녀의 자아인식(self-perception)에 영향을 미치며, 칭찬과 격려와 같은 부모의 지지는 자녀의 스포츠경험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raser-Thomas & Côté, 2009).

또한 자녀에 대한 정서적지지 등을 통해 부모가 자녀의 스포츠활동을 지지하는 것을 자녀가 인지하는 경우 유능감, 자신감, 동기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자녀가 스포츠활동을 지속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Babkes & Weiss, 1999; Collins & Barber, 2005; Ullrich-French &

Smith, 2006).

또한 Fredrick 과 Eccles(2002)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부모의 중요한 역할을 설명하였다. 먼저 부모는 제공자의 역할로 자녀에게 스포츠를 통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자녀의 연습과 시합에 자녀를 데려다주는 것, 등록비를 지불하는 것, 자녀의 스포츠활동에 지지를 보내는 것 등으로 설명된다. 또한 부모는 스포츠를 통한 발달, 성공과 같은 가치와 믿음을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자녀의 스포츠에 대한 관여에 영향을 준다. 마지막으로 부모는 자녀의 롤 모델(role model)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부모가 승리와 패패와 같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와 스포츠 참여에 대한 역할은 자녀의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제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를 살펴보면, 부모가 자녀의 스포츠로의 사회화에 영향을 주는 연구(김현주, 2011; 이에리사, 1997; 정영린, 김홍설, 1996), 부모의 양육이 자녀의 스포츠 참여와의 관계(맹이섭, 황미경, 2010; 조영제, 2001; 권민혁, 1994), 부모 지지가 운동선수들에게 미치는 영향(성창훈, 2011; 이광호, 권승민, 김성훈, 2009)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전의 논의들은 부모의 역할과 기능의 측면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부모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는 구희영(2016)의 연구로 제한되어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자녀의 스포츠참가에서 부모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3. 유소년 스포츠클럽에 대한 이해

1) 유소년 스포츠클럽의 개념

서구의 경우 유소년스포츠(youth sport)는 19세기 후반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자녀의 인성발달과 더불어 자본주의 경제에 적합한 성인으로의 사회화를 목표를 중심으로 조직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Chudacoff, 2007). 유소년스포츠는 학교, 지역사회, 교회 등의 지지를 받으면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유소년 스포츠는 1946년과 1964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젊은 부모들의 가치관 맞물리면서 1950년대와 1960년대 조직적 유소년 스포츠는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Coakley, 2011).

우리나라의 경우 유소년 스포츠는 엘리트 체육, 학교체육, 생활체육 등을 기반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유소년 스포츠클럽은 생활체육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채재성, 김현석, 2000). 이에 따라서 학교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개념과 성격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유소년 스포츠클럽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표 2. 학교 체육활동의 3대 영역(교육부, 2013. 재구성)

구분	대상	명칭	개념
정과 체육	일반 학생	체육수업	정규 수업
	학생 선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의 하위 영역
과외 체육	일반 학생	학교스포츠클럽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
		방과 후 체육 활동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특기적성 프로그램
		토요 스포츠 데이	건전한 여가 생활 및 체력향상을 위해 토요일에 제공되는 스포츠 프로그램
		틈새 체육활동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 비정기적 교내 체육활동
엘리트체육	학생 선수	학교 운동부	대학체육회에 등록 된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체육활동

학교 체육활동을 [표 2] 학교 체육활동의 3대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학교체육은 정과체육과 과외체육 그리고 엘리트체육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과 체육은 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체육수업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과외 체육은 정규수업 이외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체육 활동으로 학교스포츠클럽, 방과 후 체육활동, 토요 스포츠 데이, 틈새 체육활동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 체육활동에서의 엘리트체육은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학교 운동부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유소년 스포츠클럽과 명칭이 유사한 학교스포츠클럽의 개념과 성격을 살펴보면, 학교스포츠클럽은 방과 후 활동으로 행해지는 방과 후 자율체육활동, 과외 체육활동, 체육동아리 활동 등을 아우르는 용어로 현재 학교현장에서 일반학생으로 구성된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는 사업의 일환이다(허창혁, 오교문, 2013). 스포츠클럽과 학교운동부는 성격과 대상에서 [표 3]과 같은 차이점을 갖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표 3.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계획(교육인적자원부, 2007)

구분	스포츠클럽	학교운동부
성격	· '보는'스포츠→'하는' 스포츠 · 생활체육(sports for all students) · 일반 학생의 자율체육활동 활성화	· 경기력 향상 · 전문체육(elite sports) · 전문체육인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활동
대상	· 일반학생	· 학생선수 (대한체육회 선수등록)
주무부처	· 교육부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 문화부(대한체육회)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학교스포츠클럽은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신체 활동에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7년에 학교스포츠클럽을 도입하였다(허현미, 김선희, 2007).

학교 스포츠클럽은 한국형스포츠클럽, 청소년스포츠클럽과 차이점을 보이며, 이에 따라 각각의 스포츠클럽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학교스포츠클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우선 청소년 스포츠클럽은 학교운동부 중심인 유소년 스포츠클럽에서 벗어나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 체육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한 사업을 말한다. 2007년부터는 한국형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스포츠클럽은 이에 편입되어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손천택, 최기표, 안상수, 2007). 한국형스포츠클럽은 성인 위주이거나 엘리트 선수 육성에 초점을 기울이는 정책적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학교스포츠클럽은 교육부 주관으로 학교운동부 문화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있지만, 주로 일반 학생들의 스포츠활동 참여 증진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허현미, 김선희, 2007)

표 4. 스포츠클럽 비교(허현미, 김선희, 2007)

구분	학교스포츠클럽	청소년스포츠클럽	한국형 스포츠클럽
운영 주체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교육청	대한체육회, 대학	지역 스포츠클럽
특징	· 학교 일반 학생 · 주중 방과 후 / 주말 위주 활동	· 2007년부터 한국형 스포츠클럽에 편입	· 성인위주 · 주말 위주의 활동

유소년 스포츠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단어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여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유소년 스포츠(youth sport)는 조직화된 신체활동을 전부 일컫는 행위로 어린이와 유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훈련과 시합 등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Coakley, 2011).

유소년 스포츠클럽은 방과 후 또는 주말에 각종 운동 및 신체활동을 통하여 개인 생활 중심 태도에서 벗어나 신체적, 정신적 발달과 신체단련, 협동심, 성격발달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새로운 교육방법인 체육과외 프로그램으로 설명할 수 있다.

유소년스포츠클럽은 앞서 살펴본 학교체육활동 영역과 달리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유소년스포츠클럽은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 외에 학원이나 그 밖에 과외 활동을 통해 자녀들의 부족한 점을 보안하기 위한 목적과 유소년들의 신체활동,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설 스포츠교실' 혹은 '체육과외프로그램'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높아진 관심은 과거 유소년스포츠가 도장 체육시설과 학교체육에 한정되어있던 것과 달리 현재 다양한 시설과 종목별 프로그램, 전문성 있는 지도자를 갖춘 유소년스포츠클럽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구희영, 2016; 정두환, 전정우, 2008).

이러한 유소년스포츠클럽은 학교 체육활동과 엘리트체육과 차이를 갖게 된다. 이는 학교스포츠클럽, 정과체육의 경우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교사 혹은 코치와의 관계가 특히 중요시 되는 것에 비하여 유소년스포츠클럽은 상대적으로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시 된다는 점이다. 이는 유소년스포츠클럽의 경우에도 학교체육활동과 마찬가지로 참여자는 자녀라고 할 수 있지만, 학교체육에 비하여 실질적인 부모의 영향력은 더 크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유소년스포츠클럽에서의 부모는 자녀를 유소년스포츠클럽에 등록시키고, 코치/자원봉사자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며, 재정적 지원을 비롯하여 자녀의 시간을 관리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력과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Green & Chalip, 1998; Brustad, 1993).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학교 체육활동과 유소년스포츠클럽의 비교를 통해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조직화된 프로그램으로 유소

년을 위한 체계적인 스포츠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운영하는 것을 유소년스포츠클럽의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2) 유소년스포츠에 대한 이해

Coakley(2006)는 유소년의 조직적인 스포츠 프로그램 참여는 1950년대 놀라울 정도로 참여가 이루어 졌으며, 이후 유소년 스포츠의 성장은 후기 산업사회에서 자녀와 양육 그리고 가족과 관련된 문화적인 요인과 사회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한다고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오늘날의 유소년 스포츠 참가와 관련하여 6가지로 설명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2)신자유주의 관점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관련한 양육전략의 일부분이라는 점, 3)스포츠 참여가 자녀의 긍정적 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믿고 있다는 점, 4)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집 밖은 자녀에게 안전하지 않다.' 는 이미지, 5)아이들, 특히 남자 아이들의 경우 어른들에 의해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화 혹은 통제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두려움과 관련된 것, 6)오늘날 운동선수가 영웅으로써 대표되고, 스포츠가 중요한 문화적 이벤트로 대표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직화된 유소년 스포츠는 많은 부모들이 우선적으로 선호하는 활동이 되었고, 이는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가 유소년 스포츠의 코치 혹은 선생님 아래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 즉 경쟁심, 목표성취 등과 같은 가르침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유소년들의 스포츠 참여는 스포츠 참여가 자녀의 긍정적 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믿음과 관련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이에 유소년의 스포츠클럽 참가는 신체적 기능, 즉 자녀의 건강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하며, 친구와 다른 구성원들과의 사회적 교류의 기회 확대, 스포츠 참여에 따른 즐거움 등의 이유로 이루어지고 있다(Holt & Knight, 2014). 또한 Sarrazin 외(2002)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자녀의 스포츠 참여는 독립심,

소속감, 유능감 등과 중요한 관계를 보고 하고 있다.

한편, 유소년들의 스포츠 참여 동기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Gould 외(1982)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어린 참여자들은 부모, 코치 등 다른 사람들의 격려와 사회적 지위가 유소년들의 참여 동기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영향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혹은 스포츠 참여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참여 종목과 관련된 기술, 경험 등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유소년스포츠에서 자녀가 그만두는 것(dropout)과 관련하여 Klint 와 Weiss(1986)는 세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먼저, 힘든 운동 프로그램 혹은 부상으로 인해 그만두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마지못해 하는 중도탈락(reluctant dropouts)'이란 개념으로 설명된다. 다음으로는 '자발적 중도탈락(voluntary dropouts)'이란 개념으로 다른 스포츠 종목이나 활동으로 참여자가 이동함으로써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저항적 중도탈락(resistant dropouts)'은 참여하는 혜택 보다 비용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판단될 때 스포츠참여를 그만두는 점을 말한다.

이러한 유소년 스포츠의 확대, 참여, 중도탈락 등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점은 유소년 스포츠 참가를 통한 자녀의 발달 측면이다. 이와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스포츠참가가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스포츠 참가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주5일 근무제 시행 등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 생활체육 전반에 걸쳐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정영린, 2006). 하지만, 이와 같은 변화는 생활체육이 주로 성인 중심의 클럽으로 운영되었다는 점과 엘리트체육과 연계되지 못한 채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스포츠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이원화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이용식, 성문정, 고은하, 김경원, 이광희, 2005).

이와 더불어 국민생활참여 실태조사(2015)에 나타난 것처럼 오늘날 한국의 유소년과 청소년의 스포츠 참여는 학교체육, 엘리트체육, 생활체육으로 구분되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지 못한 채 서로 각각의 영역에서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 중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한 스포츠클럽의 경우 2000년대 체육과외 혹은 스포츠교실이라는 목적으로 유소년 스포츠클럽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후 외국계 유소년 스포츠 프랜차이즈 개설, 종목별 세분화, 운영의 차별화 등이 이루어지면서 유소년스포츠클럽은 양적 측면과 더불어 질적인 성장을 하게되었다(구희영, 2016).

야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현재 유소년야구는 프로야구의 인기와 더불어 생활체육의 한 부분으로써 사회인 야구인의 증가 등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오고 있다. 유소년야구는 학교야구부, 리틀야구, 유소년야구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먼저 학교야구부의 경우 학교에 소속된 운동부로 전문선수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100여개의 학교가 있다. 학교야구부에 소속된 유소년들의 경우 초등야구부를 거쳐 중・고등학교 야구부에 진학하고 이후에 프로선수를 목표를 하고 있다.

다음으로 리틀야구의 경우 현재 대한야구협회에 승인된 조직인 한국리틀야구연맹에 소속된 유소년야구클럽을 말한다. 현재 연맹에는 196개의 팀 2,231명의 등록선수가 활동 중이며, 각 지역을 중심으로 팀이 구성되어 있는 리틀야구단은 선수반, 취미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야구선수 위주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 야구부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소년야구는 대한유소년야구연맹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1년 제1회 보이스리그 대회를 개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2014년 5월 국민생활체육 전국야구연합회 유소년 연맹에 가입하면서 정식으로 출범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유소년야구의 경우 선수반 또한 운영하지만 엘리트 선수육성 위주가 아닌 생활체육에 기반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106개의 팀이 등록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3) 유소년스포츠와 PYD 모형과의 관계

Larson(2000)은 조직화된 활동은 유소년들에게 적절한 환경과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해 주며, 이러한 환경은 유소년 발달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 중 스포츠는 가장 조직적인 활동으로 유소년 발달을 위한 훌륭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Larson & Verma, 1999). Coakley(2011)는 단순히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이 긍정적인 발달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구성, 지도자, 부모 등 스포츠를 둘러싼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스포츠를 통한 긍정적 발달은 스포츠에 참여하는 청소년과 관계를 맺는 긍정적인 환경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Holt, 2008).

Pittman과 Ferber(2001)는 긍정적 발달을 스포츠참여자의 역량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았으며, 참여자들의 다양한 체험, 경험, 활동을 통해 유소년, 청소년기에 당면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성공적인 성인으로서의 삶을 위해 필요한 역량 즉, 사회적 · 도덕적 · 정서적 · 신체적 · 인지적 · 직업적 측면에서의 역량들을 발달시켜 나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김진호, 2006).

긍정적 발달은 청소년을 더 이상 문제를 안고 있는 대상이 아니라 자원을 가진 존재이며, 사회의 변화를 성인과 함께 이끌어나갈 적극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관점이다(Lerner, Brown, & Kier, 2005). 이는 부정적인 측면의 치료나 예방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건강한 측면의 개입을 통해 청소년 개인의 성장과 역량개발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의미를 두는 것이다(김진호, 2006; Holt, 2008). 이는 유소년과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과 성공적인 성인이 된다는 점이 단순히 청소년 시절 문제행동을 예방과 치료 차원의 접근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긍정적 발달은 성인으로서의 삶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역량들을 개발하고, 사회에 기능적으로 작용하는 행동들을 증가시키며,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위험행동과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Holt, 2008).

PYD는 모든 아이들은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아이들과 청소년을 바라보는 강점 기반 접근법이다(Lerner, Brown, & Kier, 2005). 그러나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과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에 대한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아이들의 성장을 생태학적 맥락에서 바라보았으며,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긍정적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생태학적 접근 방식은 부모-가족 관계와 같은 프로그램과 운동선수와 코치의 상호관계 등을 설명하기에 유용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Holt & Knight,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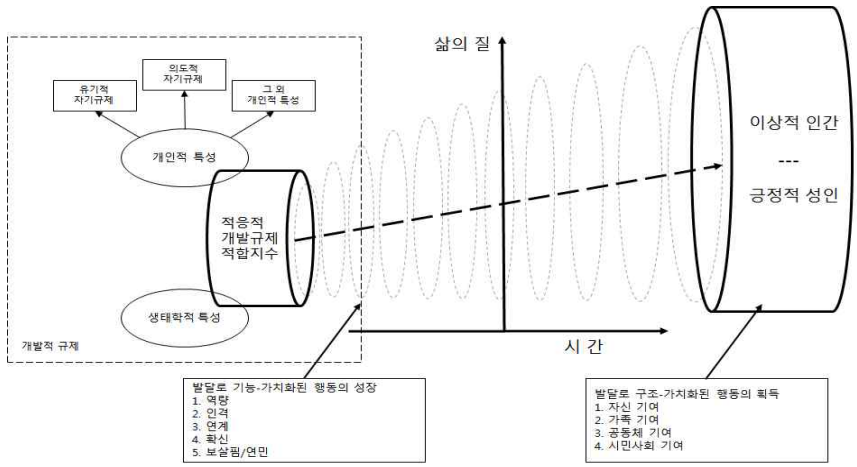

그림 8. Positive Youth Development Model (Theokas & Lerner, 2006))

PYD는 모든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및 정책 등을 장려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긍정적 발달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다양한 환경에 청소년이 노출된다면, 긍정적 경험과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Holt, Knight, 2014).

또 다른 중요한 개념으로는 상대적 가소성(relative plasticity)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가소성은 변화하거나, 진화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을 일컫는 말로써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점토로 비유하여 모형을 만들거나 혹은 어

떤 특정한 모양으로 변화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개인은 변화할 수 있으며, 발달은 유전적인 문제 혹은 환경적인 문제로 인하여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상대적 가소성 개념은 한 개인과 환경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방법이 된다. 만약 긍정적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적절한 환경을 구축한다면, 상대적 가소성의 개념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유소년과 청소년의 긍정적인 성장을 위한 기회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상대적 가소성은 '청소년기에 관한 적절한 사전 연구와 함께 청소년의 긍정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정책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방법의 선정

Creswell(2012)은 연구문제의 특성, 탐색이 필요한 주제, 구체적인 시각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연구, 연구참여자들이 처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연구대상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질적 접근을 선택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으며, 질적연구는 철학적 가정을 시작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특정 패러다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철학적 가정은 일반적으로 다섯 가지로 분류되는데, 이는 존재론적, 인신론적, 가치론적, 수사론적, 방법론적으로 설명된다. 또한 패러다임의 경우 후기실증주의, 사회구성주의, 옹호/참여주의, 실용주의 등 다양한 패러다임으로 구분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아버지다움(fatherhood)의 의미와 아버지들의 스포츠양육 과정에서의 경험을 통해 사회적 맥락에서 아버지다움의 의미를 탐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와 가능한 가까워지는 것, 현장에서의 연구를 통해 참여자가 하는 말을 맥락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위해 인식론적 가정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사회구성주의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연구참여자들이 살아가고, 활동하는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사회구성주의 패러다임에 따르면 이러한 개인의 주관적 의미들은 사회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며, 이는 개인에 단순히 각인된 것들이 아닌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역사적이고 문화적 규범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구성주의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아버지다움이 어떻게 구성되고, 그들의 경험이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와 관련하여 탐색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 선정은 질적 연구 방법 중 의도적 표본추출법(purposeful sampling) 중 사례인 기준(criterion) 표본 추출을 실시하였다. 사례인 기준 표본 추출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선정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거하여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종목 중 야구를 중심으로 오늘날 아버지다움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야구종목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은 오늘날 높은 야구 열기 속에서 야구에 갖는 관심이 높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체육에서는 야구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 사실에서 다른 종목과 비교하여 아버지의 역할이 보다 더 강조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실제로 본 연구자가 연구에 앞서 다양한 종목에 대한 관찰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에게 주요타자의 영향, 즉 교사, 코치, 감독, 부모가 주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야구 종목은 픽업, 캐치볼 등 아버지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다른 종목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오늘날 아버지다움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관찰하고자 야구를 선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소년야구클럽에 참여하는 자녀를 두고, 아버지가 자녀의 스포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버지 10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종목 선택의 기준은 현재 대중화된 스포츠활동 중 가장 인기가 높은 야구로 선정하였으며, 유소년야구클럽의 경우 운동선수 육성, 중학교 야구부진학으로 목표를 한정시키지 않은 클럽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 모집은 현재 등록된 리틀야구연맹(196개)과 유소년야구단(106개)의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그 클럽의 목적으로 분류하였으며, 이후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 아버지들의 참여가 적극적인 클럽을 선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양주에 위치한 Y유소년스포츠클럽에 연구를 협조하게 되었다.

남양주는 우선 지역적으로 사회인야구에 대한 열기가 높으며, 야구시설과 관련된 인프라가 잘 구비된 지역이다. 현재 대부분의 유소년스포츠가 엘리트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과 비교하여 Y유소년스포츠클럽은 유소년들의 운동능력이 중심이 아닌 취미를 통한 2등과 3등 그리고 꼴등을 길러 낸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대한유소년야구연맹 회원팀 전국 약 100여개 팀 중 가장 많은 8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유소년야구단의 방문과 관찰을 통해서 자녀의 스포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버지들을 선별하였고, 아버지들에게 연구에 대한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IRB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배경 정보는 다음과 같다.

참여자	나이	학력	직업	연봉	거주지역	자녀 나이	맞벌이 유무
#1	41	전문 대졸	회사원	8,000	남양주	남(6) 여(10)	x
#2	40	대졸	회사원	7,000	퇴계원	남(9) 여(7)	○
#3	44	대학 원졸	자영업	8,000	남양주	남(17) 남(11)	○
#4	45	대졸	회사원	7,500	구리	남(10) 여(12) 남(14)	x
#5	41	고졸	유통업	4,000	남양주	남(7) 남(9)	○
#6	45	대졸	회사원	7,000	남양주	남(9)	○
#7	45	대졸	회사원	9,000	남양주	남(12)	x
#8	44	대졸	자영업	10,000	남양주	남(12) 여(14)	x
#9	41	대졸	회사원	7,000	남양주	남(11) 남(10)	○

3.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 비참여관찰,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1) 문헌연구

문헌고찰은 주로 기존 사회변화에 따른 아버지역할의 변화, 스포츠양육, 스포츠클럽과 관련된 연구들의 결과와 조사 결과물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는 면담을 통해 도출되는 아버지들의 스포츠양육과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기본적으로 연구에서 활용될 문헌은 국내·외 연구의 결과물, 학술지 논문들의 결과들이었다. 하지만, 사회변화에 따른 가정의 변화와 스포츠클럽의 현황과 제도를 파악하기 위해 각종 기관에서 발행한 공식문서, 보고서, 통계조사 등 다양한 문헌자료도 분석하였다.

2) 비참여관찰

질적연구에서 사용되는 전통적인 연구 방법으로 참여관찰과 비참여관찰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스포츠참가에 따른 아버지들의 스포츠양육 경험과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 자녀의 스포츠활동을 참관하고, 참여하는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비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비참여관찰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관여 하지 않고 관찰을 토대로 기록하는 것으로 아버지들의 스포츠양육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중점을 두고 관찰하였다.

아버지에 대한 관찰은 남양주에 위치한 Y유소년야구클럽을 중심으로 주 1회로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였다. 2월과 5월에는 두 차례 유소년야구클럽이 참여하는 전국유소년야구대회에 함께 참여하여 관찰하였다. 관

찰 중에는 관찰 노트를 작성하여 관찰시 생긴 의문점과 특이점을 기록해 두었으며, 아버지들과 면담과정에서 관찰한 내용과 관련된 추가적인 질문을 실시하였다.

3) 심층면담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을 통해 아버지의 스포츠양육과정과 의미를 탐색하였다. 심층면담은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자녀를 둔 아버지 8명을 대상으로 2017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진행되었다. 심층면담의 내용은 선행연구를 통해 면담범위와 내용을 선별하였고,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구성하였다. 면담 질문은 크게 3가지 주제와 관련있다. 첫째, 아버지의 스포츠양육에 대한 가치, 둘째, 아버지의 스포츠양육 과정에서의 경험, 셋째, 아버지의 스포츠양육 과정에서의 변화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구성된 면담 질문을 통해 실제 반구조화된 면담, 비구조화된 면담을 혼용해서 진행하였다.

면담 실시에 앞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배경, 목적, 면담 결과의 활용 등 연구의 일반적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면담은 기본적으로 연구 참여자 마다 2회씩 실시하였으며, 면담장소는 연구 참여자가 최대한 편안한 상태에서 참여할 수 있는 곳으로 그들의 편의를 존중하여 결정하였다. 실제 면담은 스포츠클럽 주변 카페, 식당 등에서 진행되었다.

면담시간은 대체적으로 1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심층면담 이후 정보가 필요한 경우 추가면담 혹은 온라인 메신저를 활용하였다.

면담내용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은 후 녹음기를 통해 녹취하였으며, 녹음파일은 암호화하여 연구자의 개인 컴퓨터에 보안관리 아래 보관하였다. 또한 면접노트를 작성하여 스포츠클럽에서의 관찰 혹은 면접 시 발생하는 특이사항, 질의사항 등을 정리하였다.

연구문제	내용
스포츠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들은 어떻게 아버지다움을 인식하고 있는가?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싶으신가요?
	자녀에게 부모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부모의 역할 중 아버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일주일에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평소에 가정에서 어떤 부분에 참여하고 있나요?
	일상에서 가정 혹은 양육과 비교하여 스포츠양육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은가요?
	어린시절 아버지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좋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포츠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자녀를 스포츠클럽에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이 종목을 선택하게 되었나요?
	스포츠클럽을 선택할 때 고려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자녀에게 스포츠 참여는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나요?
스포츠양육을 통해 아버지다움은 어떻게 실천되는가?	언제부터 스포츠클럽에 함께 오게 되었나요?
	스포츠클럽 참여 이전과 이후에 변화가 있나요?
	스포츠클럽에 아버지가 함께 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스포츠클럽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시나요?
	스포츠클럽 이외에 자녀와 어떠한 시간을 보내는지?
	스포츠클럽을 참여를 통해서 자녀/가족/아버지는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나요?
	스포츠 양육에서의 좋은 경험은 무엇인가요?
	스포츠 양육에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Creswell(2012)이 제시한 질적 연구자료 분석 방법 6단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자료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 전후맥락을 파악하는 동시에 아이디어 획득에 적합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 심층면담 자료를 전사하는 작업을 시행한 뒤, 주요 연구를 위한 자료로 활용했다. 전사작업은 연구자가 자료의 내용을 이해하고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 본인이 직접 실시하였다.

5. 자료의 진실성 검증

질적 연구에서는 활동된 자료의 진실성에 따라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판단된다. 연구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많은 방법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수행 후 도출된 연구결과를 Lincoln & Guba(1985)가 제시한 삼각검증법(triangulation), 동료간 협의(peerdebriefing), 구성원간 검토(member check)의 방식에 따라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6. 윤리적 고려

질적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개인의 민감한 주제를 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구참여자가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 윤리성을 위해 2017년 12월 3일 소속대학교의 연구심의를 의뢰하여, 2017년 3월에 최종 승인을 받았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연구자가 고려한 윤리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결과에 연구참여자들의 사생활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기술하지 않았으며, 모든 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둘째, 연구에 참여하기 위해 연구 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참여 동의를 받았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에

게 연구 과정에서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만둘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셋째, 연구중 관찰과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개인 컴퓨터에 암호화 하여 보관하였다. 넷째, 연구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음을 안내하였다.

Ⅳ. 결과

1. 아버지들이 인식하는 아버지다움

사회·문화적 변화와 더불어 아버지다움의 의미의 불확실성은 오늘날의 아버지들로 하여금 좋은 아버지다움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함께 '좋은 아버지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아버지담론, 즉 생계부양자(breadwinners)의 역할을 기대하는 아버지에 대한 사회적 균열은 오늘날 아버지다움에 대한 의미를 불확실한 상태로 만들면서 아버지들에게 변화된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Coakley, 2006).

아버지다움(fatherhood)은 사회적 산물이며, 아버지들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에 기인하여 형성되기 때문에 하나의 창(window)으로 아버지다움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 연구참여자들은 유년시절 아버지에 대한 기억,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그들의 아버지다움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아버지다움을 형성하는 관계적 측면에 주목하여 유년시절 아버지와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아버지다움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유년시절 아버지와의 관계 : 기억의 잔상

아버지들이 기억하는 유년시절 본인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경험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아버지' 혹은 '아버지다움'의 의미를 본인의 유년시절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경험을 통해 아버지다움을 설명하고 있었다.

먼저 대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은 과거의 아버지에 대해서 '엄격함', '무

서움’ 등과 관련된 기억으로 자신의 유년시절의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돈 벌어 오시는 분 끝! 지금도 어머니가 가끔 그러세요. 어딜 가도 너 아버지는 손을 잡아준적이 없다. 어디 뭐 옛날에 88서울 엑스포할땐가 저도 기억이 나요. 가는데도 아버지는 먼발치에서 쭉쭉 걸어가시고, “왜 안와?” 이러시고 정반대죠.

(참여자 6)

뭐 어렸을 때 아버지들은 비슷했던 거 같아요. 무서우시고, 일만하시고...(중략).. 그러다 보니깐 요새 사람들은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 같습니다.

(참여자 9)

이러한 진술은 전통적인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오늘날의 아버지들의 생각하는 아버지다움, 좋은 아버지와 관련된 생각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엄하고 무서운 가장으로서의 아버지로 기억하며, 아버지를 가정의 밖에 위치시키며, 자녀와의 정서적 관계 또한 거리가 먼 아버지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거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다른 연구 참여자의 진술에서도 나타나는데, 그들은 유년시절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다른 아버지다움을 형성하고 있었다.

굉장히 무서운 아버지였어요. 동네 친구들이 우리집에 놀러오기 싫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무서운 아빠가 되지 말아야지 했는데도, 신기하게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아빠의 싫어했던 부분을 제가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봐요. 내가 싫어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하는걸 보면, 애들도 커서 지금은 아빠의 저런 모습을 닮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결국은 그 모습이 나올 거 같아서 저처럼. 저도 원했던 건 아닌데. 그래서 저는 잔소리는 안하려고 노력을 많

이 해요.

(참여자 8)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어린 시절 생각했던 부정적인 아버지의 모습과 다른 아버지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다. 반면에 싫어했던 아버지의 모습과 어느새 닮아가는 본인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 또한 미래의 모습이 될 수 있음에 걱정을 하고 있었다.

이전의 사례와 같은 맥락에서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과 아버지와의 함께한 시간이 없다는 아쉬움은 오늘날 아버지다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아버지와 함께 하지 못한 시간은 자녀에게 잘 해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아버지들은 본인의 아버지를 부정적으로 그리는 기억 한편에는 아버지와 함께했던 추억 또한 간직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거의 아버지와의 추억은 자녀에도 그러한 추억을 만들어 주고 싶은 바람으로 나타났다.

잘 키우고 싶죠. 그냥 아버지처럼 안 자랐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해준 거 거기에 환경이 엄하고, 아버지가 잘 놀아주고 그런 게 없자나요. 저는 못 받고 자라서 자식한테는 해주고 싶은 마음에…….

(참여자 4)

아버지는 제가 소설에서 읽었던 아버지와 비슷했어요. 약주 많이 하셨고, 담배도 많이 피우셨고, 지나치게 권위주의적 이여서 못마땅하지만 그냥 따르는 아버지가 무섭긴 하지만, 뭐랄까 그 어떤 권위나 말씀하시는 거에 동조할 수 없는 반발심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리고 저희랑 놀 시간이 없었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중학교 때까지 야구를 했어요. 자주는 아니었지만, 위로 형이 있는데, 예전에 수십 년 전 야구글러브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3-4학년 때까지 아버지 형 저 셋이 캐치볼을 했었어요.

그러한 경험 때문에 아이한테 하는 거 같아요.

(참여자 3)

또한 아버지들은 유년시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기억을 통해서 아버지다움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의 연령대가 40대 초중반인 것을 고려할 때, 아버지들의 유년시절은 우리사회에서 경제적 위기가 가시화 되던 199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아버지들은 그 당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하지 못한 경험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들에게 어린 시절 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이유에서 할 수 없었던 경험들이 오늘날 아버지다움에서 자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어릴 때는 대부분 제가 40대 중반인데 보편적으로 가난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하고 싶었던 게 많았던 거 같아요. 태권도를 한다든가 야구를 한다든가 피아노를 한다던가.. 경제적인 것들이 가능하면 아이들이 하고 싶은걸 많이 해주고 싶고, 제 경험에서 그런 거 같아요.

(참여자 3)

저희 때 부모님은 그때는 못 살고 그래서 제재하는 게 많았잖아요. 뭐 하고 싶다고 하면 "그래 좀 생각좀 해보자" 이렇게 넘어가고, 그럼 못하고 때 놓치고, 이런 게 많아서 저희 애는 하고 싶어 하면 "어 그래?" 소질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깐 애가 어떤 거에 소질을 보일지는 모르니깐 하고 싶으면 하는 쪽으로 지금은 제가 제일 적극적으로 해주는 거고요. 따른 종목도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는걸. 했었는데...

(참여자 5)

한편, 아버지들은 과거 유년시절에 대해서 ‘주말도 없이 일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등으로 회상하면서 유년시절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었다. 특히, 그 당시 아버지와 함께한 작은 추억들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고마운 마음으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자녀에게도 이러한 추억을 남겨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저는 다행이 어렸을 때, 좋은 아빠를 만났다는 거를 지금도 생각하는데, 집이 잘 산거는 아닌데 아버지가 많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여러 가지 보러 다니고, 운동도 같이 해주셨거든요 동네에서 축구도 같이 해주시고 그 당시에는 학원 같은 건 아니고 집 앞에서, 크고 나서 아빠가 되었을 때 막상 아빠가 그 시절에 어떻게 했을까 존경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참여자 1)

저희 아버님은 좋은 분이셨죠. 돌아가셨는데, 운동 많이 하셨어요. 농구도 하시고, 축구도 하시고...(중략)...우리 때 아버님들이 그 때는 주말도 없이 일할 때였어요. 관심도 많으시고, 제가 부탁도 안했는데 제가 야구 좋아하니깐 글러브도 사다주시고 그랬었죠 그 때 4학년인가 그랬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마 그만큼이나 관심이 있었던 거겠죠..

(참여자 7)

애들한테는 아빠와 있었던 추억이 많이 남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어렸을 때 프로 야구가 생겼잖아요. 85-6년에 어린이 회원이 있었어요. 아빠가 MBC청룡 회원가입을 하려고 지하철을 타고 간게 기억에 남아요. 그 잔상이 오래 간다는 거죠.

(참여자 1)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이 생각하는 아버지다움의 시작은 유년시절에 있었다. 이는 사회적으로 '좋은 아버지'에 대한 기대와 오늘날의 아버지담론에서의 구체적인 아버지 상이 없다는 점은 '아버지다움', '좋은 아버지'에 대한 의미를 유년시절 기억하는 본인의 아버지를 통해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아버지의 스포츠양육에 있어서 과거의 아버지와의 놀이 경험과 추억들은 오늘날 아버지들의 적극적 양육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아내와의 관계 : 좋은 남편

아버지들이 생각하는 아버지다움, 즉 '좋은 아버지'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연구참여자들은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전제를 아내와의 관계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들에게 '좋은 아버지'는 곧 '좋은 남편'을 의미하고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아내와의 관계에서 가정일과 양육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특히 맞벌이를 하고 있는 아버지들의 경우 청소, 빨래, 쓰레기 버리기와 같은 집안일과 자녀를 양육하는 역할에 대해 다른 참여자들 보다 더욱더 아버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었다.

> ***저도 맞벌이를 하고 있으니깐 같이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보고, 또 거기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뭐 집에서 남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청소, 빨래걷기, 쓰레기 버리기 이런 것들이죠. 교육은 와이프가 거의 애들이 저 학년이다 보니깐 와이프가 학습지 같은 거 같이하고 있어요.***
>
> ***(참여자9)***

똑같아요. 엄마는 맞벌이 하고 있고, 애들 챙기고 있고, 집안일 많이 하고, 아빠는 아빠로서 밖에서 일하고 집에 오면 애들 놀아주고 많이는 아니지만 가사 도와주고, 주말에는 될 수 있으면 애들 많이 놀아주려고 하고 있고..

(참여자 4)

하지만, 아버지들에게 집안일과 양육은 '공유된 것' 이라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아버지들은 집안일은 '아내를 도와주기 위한 것' 으로 진술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가정일의 경우 남자가 잘 할 수 없다는 생각과 평일 퇴근 후에는 많은 부분을 도와주기 힘든 점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가정에서의 아버지 역할을 자녀와 놀아주는 것과 자녀에 대한 양육을 지원하는 역할로 나나타고 있었다.

평일에는 많이는 못 도와주고, 아침에 나가면서 애들 등교 시키는 거, 그리고 저녁에 오면 같이 잠깐 놀아주고, 책읽어주는거 이외에는 잘 못하죠. 평일에는 개인적인 일도 많이 있고.

(참여자 10)

저는 주로 애들을 놀아주는 역할. 평상시에 집안일을 돕는 지요리.. 저는 그런 건 아니고요. 대신 캠핑을 가거나 하면 거기서는 집사람이 안하도록 설거지부터 대부분의 일을 제가 하죠.

(참여자 7)

또한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하는 것은 양육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처럼 자녀를 돌보는 것이 아내에게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으며, 아내에 대한 배려의 측면으로 여기고 있었다.

우선 제가 좋아하니깐 데리고 다니는 거고, 집사람은 직장생활을 하다보니깐 집에서 쉬고, 집안일 하라고 제가 애들 데리고 나

와서 시간 보내고 있는 거죠

(참여자 2)

제가 이렇게 데리고 오면 와이프도 좋아해요. 와이프도 그 시간에는 쉴 수 있으니깐

(참여자 1)

와이프는 상당히 좋아하죠. 아이들이랑 같이 놀아주고, 챙겨주니깐요. 안 그러면 보통 아빠들은 집에 있거나 어디 가서 술 먹거나 놀러나가니깐

(참여자 4)

이처럼 아버지들의 양육참여를 통해 아내에게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것은 아내와의 관계에서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면서 부여받는 양육에 참여하라는 사회적 기대와 책임은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어진 기대와 책임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여자 7>의 경우 부부관계에서 양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경험하면서 아내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아내와의 관계적 측면을 고려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많이 싸웠죠. 와이프랑 엄청 싸웠어요. 근데 아내도 물론 집에 있지만, 정말 힘들다는 걸 계속 어필하고,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우울증 그런 책들 육아관련 책들도 많이 봤었고, 사실 남자들이 그런 우울증이나 육아를 이해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정말 많이 싸웠었고, 그래서 실제로 같이 해보니깐 진짜

나가서 일하고 말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애들 키우는 거 정말 힘들어요.

(참여자 10)

부부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어릴 때는 양육에 대한 것이 크기 때문에 그 때 많이 다툼이 있자나요. 어쩌 뜬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제가 아이를 보는 시간에 집사람은 자유를 얻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가사노동, 육아부담을 지고 있는 건 맞는 거 같아요. 친구를 만나거나, 친정을 간다던가. 이렇게 하니깐 요

(참여자 3)

일단, 뭐 아무래도 육아에 대한 게 크자나요. 그런 다툼이 반으로 줄었다고 할 수 있죠. 저는 육아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 부족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와이프의 생각은 다른 거 같아요. 명확하게 내가 맡고 있는 시간 아빠가 맡고 있는 시간 구분해서 보는 거 같고,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엄마는 제가 이 시간을 내는 걸로 인해 일정적인 시간이 생긴 거 같아요.

(참여자 2)

연구 참여자들은 남편이 자녀를 돌보는 시간은 아버지들로 하여금 좋은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좋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는데, 연구 참여자들에게 주말에 자녀와 함께 하는 것은 자녀에 대한 의무와 함께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만약에 내가 안도와주고, 약속 잡아서 나갈 수도 있어요. 회사일 하다보면 거래처 사람들도 주말에 만나는 걸 원해서 나갈 수도 있지만...(중략)... 평일에도 애들하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주말까지 그러면, 일단은 아들이 좋아하는걸 제가 해주니깐 좋아하죠.

(참여자 10)

그거에요 혼자 하는 운동은 별로 안 좋아해요. 골프치고 뭐 예를 들어서 스크린, 필드 나가고 하는 거는 싫어하는데, 같이할 수 있는거는 좋아해요. 가서 놀아주라고 그러고, 여기 이런데 와서 같이 가자고 하고, 엄마는 애들 위주잖아요. 애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종목은 좋아하고, 저 혼자 하는 건 싫어해요.

(참여자 9)

한편, 야구를 좋아하는 아버지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녀와 함께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것이 아내와의 관계에서 비롯한 점을 볼 수 있었다. 아버지들의 개인적인 취미생활은 아내에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이유에서 자녀와 함께 '같이하는 것'을 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버지들의 자녀의 스포츠클럽 참여가 아내에 대한 관계적 측면을 고려하는 동시에 본인의 취미생활을 함께 하기 위한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와이프는 운동하는 거 남편이 혼자 가는 거 싫어해요. 대신에 가족들하고 같이 해주는 건 좋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거니깐"

(참여자9)

뒤에 아빠들 놀고 있잖아요. 아빠들이 하고 싶어서 오는거에요. 일부는 야구하고 싶은데 사회인 야구하는 사람도 많아요. 야구하고 싶은데 와이프들이 주말에 나온다고 잔소리 하니깐 애들 데리고 나오는거에요. (글러브 길들인다고 하고) 후배도 왔는데, 애가 울었가지고 못했어요. 그 친구도 좀 나오고 싶어서 애들 데

리고 자기도 야구 좋아하니깐 저랑 같이 클럽 하는 친구인데, 애 핑계대고 자기도 나오고 싶은 거죠.

(참여자 8)

오늘날 '새로운 아버지'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보편화된 가운데,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아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날의 아버지들이 생각하는 '좋은 아버지'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을 느끼면서 아내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점은 '좋은 아버지'에 대한 노력이 곧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

3) 자녀와의 관계 : 함께하는 아버지

아버지들의 아버지다움을 구성하는 또 다른 관계는 자녀와의 관계였다.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 참여자들은 오늘날의 아버지담론에서 말하는 친구 같은 아버지상을 추구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크게 '자녀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 아버지', '친구 같은 아버지', '자녀에 대한 정서적 교감'이 있는 관계를 추구하고 있었다.

먼저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버지를 좋은 아버지로 인식하고 있었다.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시간을 낸다는 것은 과거 유년시절의 아버지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였으며, 한편으로는 그들의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자녀와 함께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반증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죠. 근데 실제로 좋은 아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좋은 아빠가 되려면 정말로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고..

(참여자 10)

시간 많이 내서 잘 놀아주는 게 좋은 아버지 아닐까요? 제일 힘든 게 그런 거 같아요. 애들한테 시간을 낸다는 게....좋은 아빠는 애들이 느낄 때 좋은 아빠라고 말할 수 있는 아빠가 좋은 아빠 아닐까요? 남들이 느끼는 게 어떠든 애가 느꼈을 때, 어디 가서 "우리 아빠 최고야!" 이러면 좋은 아빠 아닐까요? 돈 많이 써서 뭘 해준다고 애들이 좋은 아빠라고 하진 않을꺼 같아요. 요새 애들 생각이 제가 느끼지 못한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때와 다른 거 같고, 그런 게 접하기 쉬워서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모르는 것도 저를 가르쳐주는 상황이 되다 보니깐.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애들이 "어떻게 해야지" 라고 그런 거 같고, 예전에 치킨한마리 사오면 우리아빠 최고였는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참여자 5)

또한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친구 같은 아버지를 원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좋은 아버지란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자녀가 그렇게 느끼는 아버지' 라고 말하고 있었다. 친구 같은 아버지는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장난꾸러기 아빠' 와 같은 탈권위주의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는 사회적인 기대에 충족하는 것과 더불어 과거 아버지들의 모습과 다른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은 잘 재미있게 놀아주고 어렸을 때는 그게 최고인거 같고 저는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마음이죠.

(참여자 9)

그전부터 엄마 아빠도 친구 같은 부모가 되는걸 원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반대했던, 아주 많이는 아닌데 진영이 잘한다는 이야기 듣고.. 요새는 야구 양말 만들어서 연습하죠.

(참여자 6)

"우리 아빠는 장난꾸러기 였다" 라고 말할 거 같아요. 제가 집에서 아이 수준에서 하고 그러니깐. 캠핑 가서 고기 꿔서 주는 가를 생각하지 않을까요? 캠핑 다닌 기억, 자전거 타고 어디간 기억들이 많을 꺼에요. 이런 기억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느끼지 못한 것들이겠죠. 그 때는 그런 자전거도 없고요.

(참여자 5)

이처럼 아버지들은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 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특히 연구에 참여한 대다수의 아버지들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야구를 시작하기 이전에 캠핑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또 다른 측면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를 지지하고 싶은 아버지'를 바라고 있었다. 여기서 아버지들이 말하는 지지는 물질적인 지원의 차원이 아닌 정서적 지지를 말하고 있었다. 아버지들은 자녀의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자녀와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저는 아이랑 친해질라고 하고, 아이랑 흔히 말하는 시간 돈다 쏟잖아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건 좋죠 결국 그게 좋은 아빠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좋은 아빠는 제가 야구 다니면서 봐요. 어떤 아빠들은 자기 아이가 야구 못해더라도 아무짓 안하고 든든하게 "잘했다...잘했다" 그니

깐 그런 아빠들 보면 좋은 아빠지 그냥 든든하게 지원해 주고 "잘했어", 실수해도 "괜찮아" 저도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못해요. 속상하고 못하면 잘하면 기분 좋고, 사실 제일 좋은 아빠는 우리 아이가 못해도 옆에서 묵묵하게 지켜봐 주는 아빠라고 생각해요.

(참여자 6)

좋은 아버지요? 그냥 애들한테 진심으로 진심이 항상 보여지는 거죠. 그니깐 부모가 자식사랑하는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순간순간에 진심들이 잘 전달되는 거고, 그게 신뢰가 쌓일 수 있는.. 그게 좋은 부모가 아닐까 생각하네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부모 자식 간에 어떤 인간관계든 마찬가지지만 제일 중요한 게 신뢰거든요. 특히 가족 간에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그 부모가 나를 믿어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삐뚤어지지 않더라고요.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거나 부모의 진심을 오해하면 삐뚤어지는 거 같더라고요.

(참여자 7)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이 생각하는 자녀와의 관계는 아버지다움을 구성하는 중요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아버지들의 생각하는 자녀와의 관계는 '시간을 많이 보내는 아버지', '친구 같은 아버지', '든든한 아버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러한 모습들은 서로 이질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다. 아버지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중요시 되고 있는 점은 자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전제로 아버지다움의 의미를 구성하고 있었다.

2. 스포츠양육을 통한 아버지다움의 실천

1) 삶의 전수 : 인생과 경험

자녀의 스포츠 참여는 부모로 하여금 기술과 가치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스포츠참여에 대해서 부모는 신체적, 인지적, 도덕적 발달 등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에게 보다 더 강조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사회의 축소판으로써 스포츠공간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동시에 연구에 참여한 대다수의 아버지들은 본인의 자녀가 현재의 교육 시스템에 매몰되지 않기를 강력히 희망하면서, 자녀가 하고 싶은 것들을 시도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 *아이들이 좋아하는거 시키면서 뭐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운동하고 싶어 하면 운동시키고,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 하고싶은거 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인거에요.*
>
> *(참여자 9)*

> *저는 하고 싶다고 하면 그쪽으로 잘하든 못하든 해보고, 자기가 안 되겠다 싶으면 따른걸 찾을꺼고, 자기가 재미있고 잘되면 계속하는데, 이것을 취미로 놓을지 인생을 만들지는 스스로 결정을 하도록*
>
> *(참여자 5)*

연구 참여자는 자녀의 교육과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스스로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참여자 5>의 경우 이제 5학년이 된 아들의 꿈은 야구선수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자녀의 취미가 직업으로 연계할 수 있음을 열어 놓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결정하는 과정은 아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

이 필요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찾길 바라며, 자녀가 그 과정을 경험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직 학원 교육을 시키진 않아요. 이건 개인적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환경이 그래서 할 수 밖에 없는데, 구지 전... 애들 다니는 건 야구, 태권도, 그리고 지금 학습하는 건 집에서 엄마가 좀 봐주거나,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시킬 수밖에 없으니깐 (중략) 그렇다고 와이프랑 저랑 항상 동일하진 않아요. 아무튼 걱정이 되니깐, 나는 생각이 다르다. 이야기도 하고, 이건 사람 성향차이인거 같아요. 애들한테 수업 정답을 맞추는 게, 인생의 정답이 없는데, 그 정답을 맞히는 외우는게 머가 중요하냐. 아이들한테 좋은 경험을 쌓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으면서 .. 이런 거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애들 대학은 어떻게 하냐? 라는 이야기를 해요. 저는 항상 이야기해요. 공부 잘하면, 좋은 대학교 갔어. 좋은 회사 취업하면, 좋은 회사 취업했어 그 다음은? 똑같거든요.

(참여자 1)

제가 이야기 했던 거는 잘 안 지켜지고 있긴 한데. 애들을 연필 잡는 학원에는 안보내고 싶다. 그니깐 남들의 시각대로 남들이 해야 한다고 하는 대로 키우고 싶지 않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많이 했죠. 제 생각에는 공부라는 것은 특히 부모들이 많이 시키면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세상 어떤 일에도 자기 스스로 나오는 need와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해야 하는지를 알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니깐. 그런 거를 너무 일찍 강요하면, 애들이 그런 거 생길 틈이 없지 않을까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나중에 애들이 정말 자기가 공부가 잘하고 싶은데 수학 도움이 필요해 그러면 그때 시켜주더라도,

부모가 넌 언제 수학을 하고, 영어를 하고 이런 거는 절대 안하겠다. 언제든지 하더라도 지네들이 안하고 싶다고 하면 안 시키겠다. 그런 생각이 강해요.

(참여자 7)

아버지들은 현재 교육제도와 관련해서 남들과 같은 방식으로 자녀가 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아버지들의 바람은 삶의 경험을 기반으로 진술하고 있었다. <참여자 1>이 진술한 것처럼, 아버지들의 인생에서의 경험은 공부 잘하는 아이가 전부가 아니었던 것이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 그리고 좋은 회사 취업을 하면? 그 이후에는요?' 라는 아버지의 반문은 오늘날 입시위주의 교육과 학벌지상주의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경험한 아버지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었다. <참여자 1>의 진술에 따르면, 자녀에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경험과 그 속에서 느끼는 깨달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 7>의 진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남들이 하는 것', '남들이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교육제도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앞선 사례와 유사하게 아버지는 인생에서 필요한 것은 수요와 원칙이며, 자녀 또한 이러한 마음을 가지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아버지들의 가치와 기대와는 다르게 교육적인 부분은 주로 아내가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역할은 가정일을 돕는 것 그리고 자녀와 함께하는 놀이로 설명되고 있으며, 특히 자녀의 운동과 관련해서는 아버지들이 보다 더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깐 운동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결정하는 부분이 크죠. 다른 교육 학교 공부나 학원 같은건 엄마가 결정하는 게 크고요. 운동에 대해서는 엄마가 관여를 안 하죠 보기만 하는 거죠

(참여자 8)

집에서 동네 친구들과 같이하는 간단한 공부방정도 그것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정말 싫다고 하면 물론 애들이 어느 정도 적응기까지는 시켜봐야겠지만 그 시기가 지나도 안 되겠다 하면 안 시키는 거죠... 어머니들은 커뮤니티, 커리큘럼이 있어요. 아줌마들이 그러거든요. 애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건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노력, 아빠의 무관심(하하) 근데 무관심은 아니잖아요. 무관심은 아닌데, 이게 아빠들이 자기의 철학을 강요를 하면 엄마들이 아빠들이 간섭하지 말고 냅두는게 좋은거다라는게 엄마들이 바라는 거고, 근데 저는 결정적일 때는 간섭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큰 원칙에서 제 원칙과 달라진다고 하면 제 의견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7)

아버지는 운동과 관련된 역할을 담당하는 반면에 아내는 교육과 관련된 것을 주로 담당하면서 아버지들은 자녀의 교육적인 부분에서 외부에 위치하고 있었다.

<참여자 7>의 진술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참여자 7>은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의 교육에 대해서 자녀가 하고 싶은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녀의 교육은 주로 엄마들로부터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진술을 통해서 '어머니들의 커뮤니티와 커리큘럼'은 자녀의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서 아버지 자녀 교육에 대한 바람은 소외되고 있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그리고 아빠의 무관심' 이라는 3가지 조건은 한국사회의 교육현실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이러한 3가지 조건은 오늘날 뜨거운 교육열을 풍자적이면서도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이 오늘날 과열화된 사교육 속에서 아버지들의 위치는 주변부에 위치 시키고 있었다. 특히 오늘날 아버지에 대한 기대를 고려할 때,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버지에 대한 기대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주변부로 밀려나는 현상은 상반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아버지들이 자녀의 교육에서 주변화 되는 모습과 달리 스포츠공간은 아버지들에게 주도적인 공간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스포츠공간은 자녀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치 있는 경험을 전수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었고,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 ***제가 봤을 땐 다른 측면이 있는 거 같아요. 공부만해서 회사 조직에서 위로 올라가서 콜라보하는 사람과 어떤 나에게 맡겨진 일이 정해졌을 때, 그 일을 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을 보았을 때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야구라는 이 공간에서 인생도 배우고 경험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죠. 어디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게 아니거든요.***
>
> ***(참여자 1)***

이처럼 아버지에게 스포츠 공간은 일반적으로 사교육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참여자 1>은 이러한 공간에서 자녀가 다른 학원에서 배울 수 없는 인생의 '무언가'를 배우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참여자 7>은 공부와 운동의 갈등이 생기면 운동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 특히 어린 시절에는 '정신력', '체력'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 ***예를 들어서 운동하고 공부 둘 다 하기 힘들다. 그러면 저는 공부를 하지 말라 하겠죠. 왜냐하면, 그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애들은 어릴 때 몸을 써서 뭔가를 해보는 경험들이 그리고 공부에 찌들이지 않는 체력이나 정신력이 중요한 거지, 지금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나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필요한 시기가 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에는 정말 어쩌피***

경쟁사회에서 남들보다 더 뛰어난 뭔가를 해야 한다. 그 시기가 정말 필요하면 중학교 2-3학년 정도? 그 뭐 가급적이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피치를 더 올릴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참여자 7)

또한,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한계를 극복하는 것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참여자 8>의 경우 '성공' 보다 '실패' 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었다. 그는 인생에서 실패는 '누구에게나', '언제나'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아들이 스포츠를 통해 실패를 경험하고 인정하는 연습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어린 시절 무언가를 잘하게 됨에 따라 생기는 자신감은 앞으로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물론, 성공하는 것도 좋고, 이기는 것도 좋은데, 져보는 것도 중요한 거 같아요..(중략).. 실패를 하고 성공을 하고 많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텐데, 그 속에서 실패를 하더라도 경기에서 많이 져봤으니깐 "오늘은 졌지만 다음엔 또 이길 수 있어, 이번에 실패 했지만 다음에는 성공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을 거 같아요. 사회생활 하면서도 잘못되어 실패를 볼 수 있는데, 그걸 자기가 인정할게 있는데, 그걸 자기가 인정하고 다음에 잘해야지 하고 넘어 가야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면 그 자기가 실패한 거 예를 들면 경기를 했어요. 졌어, 그걸 인정 못하고 엉엉 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없어지죠.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는 거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 애도 강했는데, 진거는 그래 우리가 못했으니깐 진거고 인정하는걸 배우는 거 같아요.

(참여자 8)

제대로 가르치는 이유는 잘하면 자신감이 생기자나요. 그러면 또 더 잘해보고 싶고.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 직장생활을 하든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업을 하던 그걸 제대로 해 나아가려면, 그런 경험이 쌓여야 잘 될 거라는 생각 그런 것 때문에 같이 운동을 시키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거 같아요. 나중에 인생을 살면서 그런 효과들도 있겠지만 운동을 통한 건강이나, 사람들과의 대화, 먼가 스스로 한계를 극복하는 연습이 좋은 거 같아요.

(참여자 1)

하지만, 아버지들의 전수 공간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공부가 강조 되면서 멀어질 것으로 아버지들은 예상하고 있었다.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교육'이 중시되는 시기에 이르면 자녀를 돌보는 문제에서 아버지들과 자녀의 관계는 주변화 되는 것으로 받아드리고 있었다.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가면 아빠가 애들을 놀아줄 수 있는 시간이 내기 힘들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생각한 게 요즘 더 집중하는 이유가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되거든요. 근데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저와의 같이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 걸 알기 때문에, 이때 아니면 아이들과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거 같아요. 저도 늙고, 애들이 크면 아빠와 어렸을 때 추억이 남아있지 않으면 슬플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더욱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빼더라도 애들과

(참여자 1)

아무래도 한국 교육 자체가 이런 거 같이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봐가지고 본인이 원하면은, 보시면 중학교 애들도 와요. 원하면 그때까지 시켜도 어쩌피 뭐 주말까지 열심히 공부 시키겠

습니까? 그래도 중학교 가면 그런 게 필요하긴 한데, 저는 사실은 뭐 토요일 하루 정도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도 하루정도는 운동하고 쉬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본인 의지에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까지는 제가 하는데 그 다음 부터는 본인 의지에요

(참여자 8)

아버지들에게 자녀와 함께하는 스포츠 공간은 아버지들이 살아가며 느낀 경험과 가치를 전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들은 자녀에게 제도권 교육에서 배울 수 없는 사회의 축소판으로써 야구장을 이해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서 자녀에게 실패에 대한 경험, 한계를 극복하는 것 등의 가치를 전수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들은 아버지들의 가치가 투영되는 이러한 공간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한계가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었는데, 이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교육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교육적인 부분은 주로 어머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었다.

2) 소통의 확장 : 남자들의 캐치볼

아버지들에게 자녀와 함께 스포츠에 입문하는 것은 다양한 이유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스포츠 참가 또한 한 종목이 아닌 여러 종목을 하고 있었다. 또한 자녀의 스포츠 참가도 자녀가 스포츠를 좋아한 것, 아버지가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 중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에게 캐치볼은 단순한 놀이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캐치볼은 아버지들에게 '아들과 목욕탕 가기', '아들 자전거 가르쳐주기'와 같은 '아버지들의 로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빠들 로망이 자식 키워놓고, 글러브 사다 놓고 캐치볼 하는

거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아이가 처음에 야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두산 베어스 팬이니깐 야구장 갔다가. 아이가 "아빠 글러브 사죠" 그래서 사주고 캐치볼 하다 보니깐 "아빠 나 야구하고 싶어" 그래서 왔고요.

(참여자 6)

놀이터에서 캐치볼 하죠. 그리고 ○○가 어릴 때는 플라스틱 방망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제가 던지고 때리고, 아이하고는 캐치볼을 하면서 시작하게 된 거죠.

(참여자 8)

처음은 둘이 캐치볼을 하다가 야구 규칙을 알아가면서 야구장을 다니고 직접하고 싶어 해서

(참여자 3)

연구 참여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야구에서 캐치볼을 통해서 아들과 함께 야구를 시작한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아버지에게 캐치볼은 부자간에 할 수 있는 것,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놀이로 설명되고 있었다.

야구를 하는 데는 제가 오는 게 날거 같아서. 저도 사회인 야구를 했었고요.. 왜냐면 엄마는 캐치볼을 못해주죠.

(참여자 10)

사례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아버지들에게 캐치볼은 '엄마가 할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놀이'로 인식하고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의 캐치볼은 일상이 되면서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어주게 된다. 아버지들과 아들과 시작한 놀이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일상

의 연결고리가 된 것이다.

> *캐치볼은 아파트에서 진짜 시간 날 때 마다 아들이 하자고 하면하고 그랬어요. 캐치볼이 지금 6살이니깐 받기 좋게 던져 주니깐 받는 거지, 어른끼리 하는 거는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토스하듯이 그러면 지가 잡고, 칠 수 있게 해주니깐 치고 이런 게 좋아서 계속 하자고 하는 거예요.*
>
> *(참여자 10)*

진술에서 나타나듯이 캐치볼의 전제는 서로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이 놀이가 행해진다는 점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캐치볼은 어른들끼리 하는 캐치볼과는 다르다고 설명한다.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배려, 즉 아들이 받을 수 있는 공의 세기, 둘 사이의 거리, 볼의 높이에 대한 고려는 아버지와 아들의 놀이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 *집에서도 이게 일주일에 한번 밖에 안 되니깐. 야구가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많이 해달라고 해요. 캐치볼도 하자고하고, 타격도 하자고 하고.*
>
> *(참여자 7)*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캐치볼은 부자간의 일상의 놀이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캐치볼은 단순히 공을 던지고 받는 놀이의 의미를 넘어서 비언어적인 소통의 창구로 둘 사이에 자리 잡게 된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행위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표현의 측면뿐만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적 측면을 포괄하는 것을 말한다.

캐치볼을 스포츠클럽에 참여 이후에도 아버지와 아들의 중요한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캐치볼은 단순히 스포츠클럽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곳곳과 연결되며 아버지와 아들의 소통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집에서도 야구게임하고, 아빠랑 캐치볼을 하고, 야구가 없는 날에 근처 공원 가서 삼촌하고 삼촌이 테니스 선수에요. 플라이볼 연습 시켜주고 캐치볼도 하고, 글러브 사면 또 하고 그렇게 하죠. 공부를 엄마랑 하다가 2시까지 공부해, 그럼 아빠랑 나가서 놀다와. 그러면 2시에 나가서 2시간 캐치볼 하다가 들어오고. 결국에는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자나요. 픽업하는 시간, 차에있는시간.. 야구라는 종목하나를 가지고, 이게 훈련장에 연결된 게 아니라, TV에서 강정호가 나오면 강정호 이야기 막 하면서 그러고, 아이랑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매개체가 많아지는 거죠.

(참여자 6)

애들이 아빠랑 많이 하는 게 캐치볼이에요. 캠핑갈때도 들고 가는 거예요. 가서 캐치볼 20~30분 이상 하고요. 근데 시간이 금방가요 재미있어요. 나중에 애들이 크고 나면, 부모 자식이라고 해서 항상 소통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캠핑도 2살 때부터 데리고 갔으니깐... 계속 하니깐 애들이 불만도 없고 거기서 재미를 찾는 거지 안갔던애들은 가자고 그러면 잘 안한다 하더라고요. 지금 캐치볼은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히 그런 게 더 느껴져요.

(참여자 7)

연구참여자는 항상 야구공을 가지고 다니며 자녀와 함께 캐치볼을 하고 있고, 아버지에게 캐치볼은 아들과 소통의 연습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아버지는 아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단순히 부모와 자식이기 당연한 것이 아니라 소통에도 연습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이러한 점에서 캐치볼은 아버지와 아들의 소통의 매개체로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캐치볼이 혼자가 아닌 두 사람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을 자연스럽게 함께하도록 하고 있었다.

아들과 함께하는 캐치볼을 통한 소통은 점차 더 확장된다. 캐치볼에서 시작된 부자간의 관계는 스포츠클럽에 참여를 통해 소통의 확장이 이루어진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정서적 교감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은 아들과 함께 스포츠클럽으로 이동하는 시간, TV를 보는 것, 야구장에 가는 것, 야구선수에 대한 이야기 등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었다. 또한 아버지가 평일에 직장 때문에 자녀와 함께 못하는 시간까지도 '야구'라는 매개체를 통해 소통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평일에는 직장일로 애들을 잘 못 보죠. 그래도 평일이어도 야구라는 공통된 매개체가 있다 보니깐, 카톡도 하고, 야구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야구 게임같은거도 같이 하고,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좋아하는 거 자기가 알아서 야구 관련된 책도 찾아보고, 저도 모르는걸 애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조금 더 나가면 아빠와 아들과의 관계 나이를 떠나서 야구라는 이 하나로 뭔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꺼리들이 나타날 거 같아요.

(참여자 1)

애들이 하는 거 보면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자녀들하고는 시간되면 주말에 운동장가서 캐치볼도 많이 하고 수비연습도 많이 하고.. 여기 와서 게임하자나요. 잘하고 싶어 하거든요. 실수 하면 아쉬워하고, 경쟁 심리도 생겨요. 애들이 집에만 오면 아~ 이러니깐 부모마음으로 보고 있으면 애들이 실수 하고 있으면 그러자나요. 그러니깐 주말에 시간되면, 딱 부족한 거 봐뒀다가 플라이 볼이 부족하다, 땅볼이 부족하다 이러면 봐주고 하고 있어요.

(참여자 4)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아버지의 필수품은 글러브였다. 현장에서 자녀들이 야구를 할 때 아버지들은 운동장 곳곳을 누비면서 자녀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버지들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아이들의 훈련에 참가하여 부족한 포지션을 채워주는 역할도 하였고, 1루 코치를 보는 아버지, 외야에서 볼보이 역할을 하는 아버지, 아이들의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기는 아버지들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그 중 참여하는 아버지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은 스포츠클럽 이외의 시간에 자녀와 함께 연습을 한다는 점이었다. 아버지는 자녀의 시합 혹은 연습 상황에서 본인의 아이가 실수를 하거나 부족한 점을 발견했을 때, 추후에 그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 ***연습이 끝나고 각자 집으로 향하고 있을 때 운동장 한편에서는 또 다른 연습이 시작되고 있었다. 아버지들과 아이들의 캐치볼이 시작된 것이다. 아버지와 함께 온 아이들 6명은 각자의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오늘 아들이 연습시합에서 실수한 플라이 볼을 놓친 것에 대한 연습을 하고 있었고, ○○는 오늘 투수를 하지 못한 아쉬움에 아버지와 연습을 하며 그 아쉬움을 달래고 있었다. 수업은 4시 경에 끝났지만, 30분가량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고 있다.***
>
> ***(2017. 4. 1. 관찰노트)***

한편, 아버지들에게 놀이로 시작한 캐치볼은 부자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이는 아버지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버지들은 자녀가 연습하는 동안 운동장 구석에서는 아버지들끼리 캐치볼을 시작했는데, 아버지들 사이에서 캐치볼을 하는 것은 남자들끼리 친밀도를 형성하는 과정이었으며, 자녀들이 연습에 참여하고 있는 긴 시간 동안 아버지들의 나름대로의 취미생활로 이해할 수 있었다. <참여자 9>는 자녀가 야구를 시작하게 되면서 본인도 야구에 관심을 갖고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

다. 자녀와의 시작이 캐치볼에서 시작한 것처럼 아버지 또한 다른 아버지와 캐치볼을 시작하였고, 지금은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아버지들이 하고 있는 사회인야구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오기 전에 야구를 한건 아니고, 여기 오시는 형님이 같이 하자고 그래서 캐치볼을 하다가 같이하게 된 거에요. 그분은 원래 야구를 좋아했고, 어렸을 때부터 애들도 뭐 집에서 야구를 봐왔고, 가르쳤고, 한 번도 야구를 한 적은 없었고, 애들도 학교에서 가장 친한 친구다 보니깐 같이하고요.*
>
> *(참여자 9)*

> *여기는 아빠들끼리 하는 ○○○(사회인야구팀)도 있어요. 아이들의 아버지들로. 같이 가는 거예요.*
>
> *(참여자 1)*

이처럼 아버지들에게 스포츠공간은 남자들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아버지의 로망에서 시작한 캐치볼은 부자간의 소통의 매개로 자리 잡았고, 이러한 소통이 아버지와 아들의 일상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아버지들은 자녀의 스포츠활동을 통해서 혹은 다른 아버지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스포츠공간에서의 소통의 확대를 보여주고 있었다.

3) 잃어버린 아버지다움 찾기: 아버지의 성장과 변화

아버지가 된다는 것, '아버지다움'은 어느 한 시점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첫 아이가 태어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참여자 9>는 아버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었다.

>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때는 내가 아빠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첫 아이 때는 다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 애가 내 애가 맞나? 그런 .. 근데 키우면서 그런 생각이 조금씩 조금씩 쌓여가는거죠. 둘째가 태어나고 다르고 그니깐 사람이 한번 해본 일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는 그 숙련도가 쌓이기 때문에 달라져요. 받아드리는 감정의 차이도 그렇고*
>
> *(참여자 7)*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이 인식하는 아버지다움은 다양한 이유로, 그리고 서로 다른 시기에 아버지다움의 의미를 형성하고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5>의 경우, 가족 문제로 인한 자녀의 아픔을 보며 아버지의 의미를 찾고, 아버지다움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 *○○가 예전에 틱이 있었어요. 그게 4학년 그때 큰애가 사춘기라 엄마랑 계속 부딪치고 싸우니깐 그것 때문에 틱이 와가지고, 심리치료를 좀 받았거든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래서 더 많이 놀아주려고 한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학교 조퇴시키고 캠핑도가고.. 지금은 괜찮아요.. (중략).. 그 사람들도 어쨌든 상담하니깐 이야기로 풀어주는거 같은데, 이런 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아요. 스스로 해야 하는 부분이고, 내년에 6학년 때는 자전거 타고 부산이나 가볼까? 이러고, 마포 상암동에 본가가 있어요. 남양주에서 60km 정도 되는데 "오늘 뭐하지?" 하면*

같이 성산동으로 5시간 동안 자전거 타고 가고, 그렇게 적극성이 나오겠끔 해주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틱도 없어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야구를 하게 된 것도 이러한 부분이 컸던 거 같아요.

(참여자 5)

이와 같이 아들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는 자녀와 함께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자녀와 함께 스포츠활동을 하는 것은 아버지로 하여금 자녀의 성장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자 7>의 경우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녀가 던지는 공을 받으면서 자녀의 성장을 실감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녀와의 놀이를 통해 아버지는 자녀의 성장을 느끼는 동시에 자녀와의 정서적 교류를 경험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캐치볼 하면서 느껴지는 게 "우리애가 이만큼 컸구나" 그런 생각. 공을 던지고 받는 동작, 공의 세기 이런 거만 느껴도 점점 더 달라지거든요 애들 크는 게 느껴져요. 그니깐 작년 요맘때 이녀석이 제가 던지는 공을 이렇게 던져주면 못 받고 그랬어요. 지금은 뭐 거의 어른하고 하는거 처럼 캐치볼 해도 받아요. 그니깐 아들내미랑 정서적 교류라 할까요? 애들 크는 게 더 잘 느껴져요.

(참여자 7)

아버지가 자녀의 성장을 느끼고, 정서적 교류를 하는 것은 비단 자녀와 스포츠활동을 하는 장소와 시간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아버지들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험이 그들의 인식의 변화와 아버지다움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러한 사례로 <참여자 6>은 과거에 아들에 대해서 '보호가 필요한 존재', '어리기만 한 아이'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자녀의 연습, 시합 등에 참여하면서

아들을 이해하고, 아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변화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는 이전에 아들을 '어린 아이' 로 보던 그의 시각은 '성숙한 존재' 로 아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과 태도에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 *저는 아이를 자꾸 애 취급했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일본 시합 갈 때, 따라갔어요. 와이프는 왜 이렇게 까지 하냐라는데, 나는 따라가자.. 아침 뭐나 올지 모른다. 근데 막상 가보면 애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옷 갈아 입고, 밥 먹고 다 하고 있어요. 제가 점점 더 그래서 싸운 적이 있는데, 저는 케어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가보면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바뀌는 거 같아요. 우리 아들 믿고, 조금은 덜 터치하고, 형들하고 있게끔. 애들도 그런거 싫어해요. 터치하면 자기가 무슨 애인줄 알고, 아~ 아빠가 내가 좀 지나쳤구나 라고 하는게 있어요. 이젠 간섭이 아니라 그런거니깐. 옛날에는 안에 들어갈려고 했는데, 이제는 방관이 아니라 관조하면서 아빠 뭐 해줘 했을 때, 예전에는 필요 없어도 우리가 가가지고, 따뜻하게 입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면서 달라지는 거죠*
>
> *(참여자 6)*

아버지들의 변화는 자녀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되었다. 아버지들은 자녀와 함께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자녀가 어떻게 받아드리고 있는지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지와 같은 자녀를 대하는 방식을 스스로 배워나가고 있었다. <참여자 8>의 경우 이러한 방식 중 하나로 아버지들이 아들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연습 스윙해" 와 같은 말이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것에 대한 경험적 증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에 대해서는 반성적 태도를 갖고 있었다.

"○○아 연습 스윙해" 이런 거죠. 이런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애 자신감이 뚝 떨어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만 내버려두고 봐야 된다고, 이런 게 안좋은거라고, 근데 잘 안되더라고요. 대회 나가서도 되게 답답한거에요. 그러면 안 돼요. 좋지 않아요. 저렇게 보면 있자나요. (중략) 그러다 보니깐 잔소리 안하는 게 참 중요한 거 같아요. 제가 잔소리 많이 해서 좀 주려야 하는데...

(참여자 8)

한편, 아버지들은 다른 아버지들의 행동과 대화 등을 통해서 좋은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경험하고 있었다. <참여자 4>는 오늘날 아버지들이 과거 유년시절의 아버지와 다르다는 것을 느끼면서 본인 또한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스포츠클럽에 참여하고 다른 아버지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보다 더 좋은 아버지를 만나고 있다고 한다.

요새 아버지들이 상상외로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나름대로 애들한테 챙겨준다고 하는데..여기 아버지들만 해도 달라요. 예전이랑은 많이 바뀐 거 같아요.

(참여자 4)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아버지들과 다양한 방식의 교류를 통해서 아버지다움을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었다. 특히 자녀가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 가족과 함께 참여하면서 경기가 끝난 후 회식자리에서 야구와 자녀에 대한 주제로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제 ○○아빠가 그랬을 꺼에요. 어는 5학년 아이가 시험보는 거 말고, 정말 마운드에 서서, 내야에 서서 나한테 공이 올지 모르니깐 긴장해야 되고, 그걸 어디서 느껴보겠느냐고.. 결국 그게

사회잖아요.

(참여자 6)

아버지들은 야구와 자녀라는 공통점을 통해서 그들은 자녀에게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지,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지와 같은 이야기를 오가며 아버지들에게 양육에 대한 이해와 아버지다움을 공유하고 있었다.

한편, 아버지들은 SNS활동을 통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 중 한명은 '○○에서 인생을 배우다.'라는 주제로 동영상을 올리는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공유된 영상을 통해서 다른 아버지들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생각들을 공유하고 있었다. 영상의 내용들은 '아이들 이해하기', '아이들에게 긍정적 정서가 미치는 영향', '한쪽 팔이 없는 메이저리그 투수 짐 애보트' 등이였다. 이러한 활동들은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이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 SNS에서 아버지의 활동

아버지들에게 스포츠양육 공간은 변화와 성장의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오늘날 아버지들은 '좋은 아버지'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인식하고 노

력하고 있었지만,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은 어느 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결과가 아니었다.

연구를 통해서 아버지들은 자녀와 함께 스포츠에 참여하면서 자녀의 성장을 느끼고,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면서 아버지 스스로에 대한 인식과 행동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아버지들 사이에서 자녀와 양육에 대한 생각과 가치를 공유하는 문화로 이어지며 아버지들의 변화와 성장의 기회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3. 아버지의 스포츠양육이 지니는 함의

1) 놀아주는 것 : 좋은 아버지담론의 한계와 적극적 양육 실천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이 추구하는 아버지다움과 오늘날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아버지다움 사이에 관계를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오늘날 아버지에 대한 사회적 기대 증가는 아버지가 가정 내 역할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아버지들에게 여전히 공적영역에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이 유년시절 기억하는 아버지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정 내 역할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이 인식하고 있는 좋은 아버지와 현실 속 아버지들의 모습은 여전히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대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 <참여자 10>은 우리나라에서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느끼고 있으며, 최근 방영되고 있는 육아 프로그램은 현실적인 아버지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 좋은 아버지가 되는 건 정말 힘들죠. 미디어에 나오는 그런 거는 과장이 되어있고, 카메라 안 보이는 곳에서 서포터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게 가능한 거지, 우리같이 일하는 시간이 많고, 이렇게 바쁜 나라에서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정말로 일과 관련된 개인적인 인맥을 끊어야 아이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죠.*
>
> *(참여자 10)*

> *거의 주말에만 가능한데.. 평일에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퇴근이 늦어서.. 아이를 잠깐식 보긴 하지만, 대부분 다음을 위해서 식사하*

고, 씻고, 아이는 티비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참여자3)

이러한 인식은 오늘날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좋은 아버지담론이 오늘날 아버지들이 인식하는 현실 속 아버지의 모습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아버지 담론은 오늘날 아버지들에게 표상된 좋은 아버지다움과 실제 삶과의 괴리로 나타나면서 오늘날 아버지들을 불안정한 영역에 위치시키게 된다.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평일에는 기존의 생계 부양자의 역할을 하는 아버지로 살아가며, 주말에는 좋은 아버지 역할을 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으로 아버지다움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참여자 5>의 경우에도 평일에 양육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하지만, 자녀의 양육에 참여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저랑 같은 일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그래요. 상대적으로 보면 저는 애들하고 시간을 되도록 보내려고 하고 있고.. 결국은 마음가짐인거죠. 직장 다니는 친구들도 쉬고 싶자나요. 개네들도 토요일~일요일에 하면 되지 해도 잘 안된다고 하고. 제 생각에는 마음가짐인거 같아요.

(참여자 5)

<참여자2>는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주말에 자녀와 함께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것은 아버지의 역할로 설명하고 있으며, <참여자9>의 경우 이러한 노력의 실천으로 주말에는 자녀와 함께 놀아주기 위해 스케줄을 조정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평소 아버지들이 생계부양의 역할로 인하여 가정에서의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연구참여자들에게 주말에 자녀와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며 놀아주는 것은 좋은 아

버지가 되기 위한 적극적 양육 실천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저는 자영업인데 그래도 아침에 퇴근해가지고 피곤하긴 , 제가 시킨거기 때문에 애들 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2-3시간만 애들 데리고 하면 되는 거라 그렇게 힘든 건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거 할 때는 반나절 이상식도 나가있는데 2-3시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해서 제가 힘들지만 제가 결정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참여자 2)

뭐 아침에 새벽에 나가고 하니깐 볼 수 없고, 저녁에 8시정도에 들어오니깐 그때 잠깐 뭐 애가 잘 수도 있고 안잘 수도 있어서 저녁시간에는 1-2시간 보고, 오면은 집 앞에서 공을 던진다던지 평일에는 거의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이하고 약속한 게 주중에는 너도 학습지하고, 주말에는 무조건 아빠가 최대한 놀아주는 걸로 그렇게 스케줄을 가지고 있어요.

(참여자 9)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아버지는 평일에는 공적영역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며, 주말을 이용해서 자녀와 놀아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주말시간에 자녀와 함께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주말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버지들의 진술에서 나타난 것처럼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아버지들이 양육에 참여하는 물리적인 시간 대부분이 평일 보다 주말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은 시간적 제약 속에서

적극적 양육 실천의 방안으로 일정 조정이 용이한 스포츠클럽을 선택하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저는 주말을 비워나요. 토요일만 하니깐. 토요일은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 거기에 맞춰서 스케줄 관리를 하면 되니깐. 의도적으로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과 놀 수 있는 기회가 쉽지 않아요.

(참여자 1)

거의 주말만 애들하고 보내요. 평상시에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저녁에 밖에 시간이 없자나요. 잠깐 3-4시간? 사실 놀아주고 외부활동하기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은 여기 와서 놀아주고 있어요.

(참여자 4)

또한 대부분의 아버지들에게 스포츠클럽에서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참여자3>의 경우 주민센터의 경우 맡겨놓은 공간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스포츠클럽은 자녀와 함께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이를 통해 자녀에게 안정감이 생기는 공간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참여자9>의 경우에도 스포츠클럽에 자녀와 함께 하는 것은 자녀와 소통을 하는 점에서 가정에서 하는 일 이상의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도 보내는데, 아이가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일종의 맡겨놓은 공간이고, 여기는 같이하는 공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소속감이라던지 아빠가 나랑 항상 함께 있다. 언제나 내가 부르면 올 수 있다 같이 안정감이 많이 생기는 거 같아요.

(참여자 3)

설거지도 많이 하고, 청소도 많이 해요. 근데 이건 일상생활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의미가 없는 행동이고, 와이프가 힘드니깐 도와주는 거고, 픽업하고 그런 거는 아이와 내가 소통을 하는 거고 비교할 대상이 아니죠.

(참여자 6)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자녀의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는데, 연구참여자들은 주말에 고정적으로 자녀와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녀와 공통된 관심사를 갖게 되고, 정서적으로 자녀와 더 친밀감을 느낀다고 진술하고 있다.

많이 변화가 있어요. 아빠랑 더 많이 친밀해 졌고요. 여기 들어오기 전부터 가까워지는 과정 이였는데, 같은 특정한 운동경기 중요한 관심사를 자기와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지 확실히 친밀해 졌어요. 예전에는 주말에 잠을 자거나 약속을 잡아서 나가야 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거 하면서 어떠한 시간을 고정적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많이 친밀해 졌어요.

(참여자 3)

인제 그거에요. 여기 오면서 공감대가 생겼어요. 같이하는 것들이요. 그전에는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는 저는 골프니깐 골프를 보고, 아들은 축구를 하니깐 축구를 보고, 엄마는 운동을 안 하니깐 또 안보고 했었고, 근데 지금은 야구라는 거 때문에 같이 뭐 야구 경기라든지, 같이 운동장에서, 뭐 집에서도 방에서도 엄마는 포수 보고, 저는 투수보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좋은 거 같아요. 공감대

가 생긴 거죠. 그전에는 저도 야구에 야짜도 몰랐는데, 야구만 하면 다들 모여앉아서 야구 보면서 같이 보는 게 좋은 거 같아요. 그런 게 좋은 거 같아요. 같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게

(참여자 9)

2008년 이루어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아버지들은 주된 책임영역으로 '놀아주기(60.6%)'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자녀를 놀아주는 것이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역할의 일부로 설명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아버지가 자녀와 놀아주는 것과 가정에서의 다른 역할을 동일 선상에 위치시키면서 오늘날 아버지들의 현실 속에서의 적극적 양육 실천 노력의 의미를 축소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가 자녀와 놀아주는 것이 시간의 절대적인 양적 측면이 아닌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아버지의 역할, 즉 '자녀와 놀아주기'는 단순히 자녀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 확장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아버지의 스포츠양육은 오늘날 현실적 제약 속에서 아버지다움의 적극적 실천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적극적인 양육 실천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따라서 오늘날 기대되는 좋은 아버지와 아버지들의 실제 삶과의 간극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아버지들의 적극적인 양육실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전통적 젠더 역할 재생산 : 스포츠양육을 통한 아버지다움 실천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른 가정의 변화는 아버지의 생계부양의 역할,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균열을 야기하며 새로운 아버지담론으로 아버지를 위치시켰다. 오늘날의 아버지담론은 기존에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으로 인식된 집안일, 자녀양육에 대해 아버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함으로써 전통적인 성역할의 경계를 벗어나 새로운 아버지다움을 기대하고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 역시 오늘날 기대되는 아버지다움, 즉 가사노동을 공유하고, 자녀를 돌보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오늘날의 아버지들은 유년시절의 아버지와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아버지다움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관계적 측면을 중요시 하고 있다는 것은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은 과거의 아버지와 다른 아버지다움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과거의 권위적, 엄격함 등을 갖춘 강한 모습의 아버지와 다른 아버지의 모습을 추구하고 있었다. 앞선 사례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오늘날의 아버지들은 ‘친구 같은 아버지’, ‘자녀와 함께하는 아버지’ 등을 추구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점은 오늘날의 아버지다움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준다.

하지만, 오늘날 아버지담론에서는 그 동안 여성의 영역이라 불리던 가정의 일과 양육영역으로 아버지를 위치시키며 성역할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서는 살펴본 아버지의 스포츠양육 참여가 기존에 아버지의 양육참여로 인한 성역할의 경계를 허물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다르게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화하고 재현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아버지의 스포츠양육 참여를 통한 전통적인 성역할의 재현은 아버지들의 스포츠에 대한 인식, 스포츠양육을 통한 가치의 전수, 스포츠양육을 통한 역할 등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먼저 연구참여자들은 스포츠를 남성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아들에게는 스포츠를 시키는 것과는 달리 딸에게는 음악, 무용 등 여성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포츠클럽에 참여시키는 자녀

의 성별에 따라서 다른 종목을 선택하고 있었다. <참여자 9>의 경우 또한 아들과 딸에게 다른 기대를 하고 있었다. 아들의 경우 현재 야구를 시키고 있었으며, 딸은 발레, 피아노와 같은 학원을 보내고 싶은 기대를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야구의 경우 남자가 하는 스포츠로 생각하고 있었다.

본인(딸아이)도 하기 싫어하고 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오는 거는 좋아해요. (중략)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깐 발레, 피아노 하고 싶은데, 오빠가 여기 오다보니깐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큰애가 남자다 보니깐 저희가 오빠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깐. 저희 막내도 남자가 하는 스포츠... 따라가잖아요. 위에가 언니가 그러면 그렇듯이.. 좀 남자 성향도 있는거 같아요. 또 만나는 친구도 둘 다 아들이거든요 학년이 똑같아요

(참여자 9)

한편, 아버지들은 자녀가 스포츠를 통해서 보다 더 외향적이고 남자다운 성격으로 변화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참여자 5>의 경우에도 본인의 내성적인 면과 다르게 아들이 적극적인 모습을 배워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날 사회에서 기대하는 남자다움을 전수하고자 하는 바람을 나타내고 있었다.

소극적인 거 보단 적극적이고, ○○이를 보면 성격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라는 애가 완전 운동선수 성격이에요. 자기 친형이 3루보다가 놓치면, "3루수 자세 낮춰", ○○이는 "아이 형 잘해야지..." 소극적으로... 깡도 있어야하고, 자신감도 있어야 되는데..

(참여자 6)

애들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자신 있게! 이런데서 자신감이 자꾸 붙고 그러면 크면서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성적인 면이 많아서 남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내성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자영업 사업을 하다보니깐 계속 새로운 사람은 만나고 그러면 큰 트러블 없이 만나고 하긴 하는데, 친구 같은 경우 깊게 사귀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애는 그렇게 안하게 하려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 유도를 하는데 괜찮은 거 같아요

(참여자 5)

연구를 통해서 부모의 스포츠양육참여에서 나타나는 역할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 1>의 경우에도 부부간의 스포츠양육은 주로 아버지가 도맡아서 하는 것으로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데, 이처럼 집안에서의 양육은 어머니가 담당하고, 집밖에서 활동적인 영역은 아버지가 양육을 담당함으로써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 방식이 기존의 전통적인 전통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와이프는 나오는 걸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제가 주로 나오고, 와이프는 집에서 관리해주고, 특히 남자애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거든요. 여자가 돌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운동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 1)

또한 현장에서의 관찰을 통해서 참여하는 부모님들의 경우에도 그 역할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버지의 경우 자녀의 스포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어머니들의 경우 자녀를 지켜보고, 응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림 1. 참여하는 아버지, 지켜보는 어머니

이는 스포츠양육 공간에서 보이지 않는 경계선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구분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젠더역할을 공고히 해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적 분리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버지의 경우 자녀와 캐치볼을 하고, 포수역할, 주루 코치 등 자녀의 스포츠활동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어머니의 경우 벤치에서 자녀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대비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 ***여기 계시는 어머님들도 아버지들이 참여해주기를 원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왜냐면 엄마가 캐치볼을 해줄 수는 없거든요. 한계가 있거든요. 어리면 가능한데, 애들이 커 가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
> ***(참여자 2)***

아버지들의 인식과 역할은 스포츠양육에서 아버지다움의 자연스러운 실천을 가능하게 하고 있지만, 동시에 어머니들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역할을 구분하고 있었다. 즉 아버지의 적극적 양육 실천으로 설명할 수 있는 스포츠 공간은 아버지의 가치가 투영되는 공간임과 동시에 전통적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재현하는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좋은 아버지담론에서 기대하는 아버지다움, 즉 아버지가

얼마나 가정적 혹은 여성화된 아버지인가에 초점에서 논의되어 온 사실과 다르게 아버지들은 양육참여를 통해 놀이에서 스포츠로 확장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아버지들에게 스포츠 공간은 남성적인 것을 통해 아버지다움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양육이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온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오늘날 아버지들의 스포츠양육은 기존의 양육의 여성성 담론에 변화를 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 여성성을 토대로 구성되는 양육의 관점과 아버지다움의 관계에 대한 이분법적인 시각의 차원을 넘어서 아버지들의 남성성을 통한 양육 실천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Ⅴ. 논의

본 연구는 한국의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스포츠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들이 인식하는 아버지다움에 대한 탐색과 아버지들의 스포츠양육 실천 경험을 통해 오늘날 스포츠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들의 실천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들이 인식하는 아버지다움, 스포츠양육을 통한 아버지다움의 실천에 대한 경험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아버지들의 스포츠양육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봄으로써 스포츠맥락에서 오늘날 변화된 아버지다움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1. 아버지들이 인식하는 아버지다움

본 연구의 결과에서 아버지들이 인식하는 아버지다움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관계적 측면에서 아버지다움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특히 유년시절 아버지와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Mead(1934)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바탕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상징적 상호작용에서 인간은 자아(self)를 능동적이고 주체적 성향을 지닌 자아(I)와 사회적 객관적 성향을 지닌 타아(me)로 구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회적 자아(social self)는 자아와 타아의 부단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해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이 인식하는 아버지다움은 또한 고정된 정체성이 아닌 가족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에 속에서 아버지다움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가족 형태의 변화는 기존에 지배적이던 남성의 생계부양 역할을 약화시켰고, 이와 동시에 좋은 아버지 담론으로 설명되는 아버지들의 적극적인 양육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이동욱, 2014; 조윤경, 2008; Kay, 2007). 즉

사회·문화적 변화는 아버지들이 처한 상황을 변화시키며, 특히 아버지다움은 관계적 측면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을 통해서 '아버지다움'에 대한 인식은 자신의 유년시절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경험을 회상하면서 본인의 아버지다움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아버지다움을 형성할 때 과거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날 변화된 아버지에 대한 기대 속에서 아버지다움을 실천하고,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아버지들이 양육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 기회가 적기 때문에 양육과 관련된 경험적 토대가 어머니에 비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다(신용주, 2008).

또한 연구 참여자들에게 유년시절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경험은 다양하게 진술되고 있었는데, 연구참여자들은 대체로 그 시절 아버지와는 다른 모습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바라고 있었으며, 과거 아버지와의 놀이 경험과 추억들은 오늘날 적극적인 스포츠양육의 참여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아내와의 관계가 아버지다움을 형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진술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곧 '좋은 남편이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집안일과 양육을 공유하고, 자녀와 함께하는 것 등의 아버지의 실천은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한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나타나는 아버지들의 스포츠양육 참여는 아내에 대한 관계적 측면에 주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앞선 선행 연구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Such(2005)는 삶의 주기를 통해 아버지다움과 레져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자녀를 갖고 부모됨(parenthood)에 따라 아버지는 이전에 본인 위주의 활동을 주로 하는 것으로 부터 가족과 자녀 중심의 활동으로 변화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Dyck & Daly(2006)의 연구에서는 남편이 혼자하는 여가 생활, 즉 남자가 좋아하는 여가활동은 결혼생활이 지속됨에 따라 아내가 좋아하는 활동 시간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만족도가

결혼생활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이 자녀와의 관계 뿐만 아니라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 아버지다움을 구성한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 아버지', '친구같은 아버지', '지지를 보내는 아버지' 등으로 자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다움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오늘날 아버지들에게 이전 세대 보다 더 많은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나성은, 2014; 백진아, 2009; 이동옥; 2014),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8)에서 수행한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오늘날 변화된 아버지다움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2. 스포츠양육을 통한 아버지다움의 실천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이 인식하는 아버지다움은 스포츠양육을 통한 실천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스포츠양육을 통해 자녀에게 인생과 경험을 전수하고, 소통의 확대, 그리고 아버지의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Harrington(2006)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자녀가 참여하는 스포츠활동을 함께하는 것은 자녀와 유대감을 느끼고, 관심을 보여주고, 자녀의 스포츠활동에 대한 아버지의 가치를 전수할 수 있는 등 기회가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Kay(2007)의 연구에서는 아버지들이 자녀의 성인의 삶을 준비하는 수단으로서 스포츠를 바라본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 밖에 다양한 선행연구들에서 자녀의 스포츠클럽에 아버지 참여에 따른 역할과 노력을 이해하고자 하였다(Such, 2005; Harrington, 2006; Kay, 2007; Gottzen, 2012).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 또한 자녀의 스포츠활동에 참여하면서 자녀에게 인생의 가치 있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나타

났으며, 자녀와의 캐치볼은 아버지의 로망에서 시작해서 자녀와의 일상적 놀이로 그리고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면서 소통의 확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선행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에게 나타나는 자녀에 대한 교육관은 '자녀가 하고 싶은 것'을 중요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이라는 풍자적 표현처럼 아버지는 자녀가 학년에 올라감에 따라 자녀의 교육적 부분에서 주변부로 위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녀의 양육에서 교육은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는데,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에게 교육은 '어머니들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아내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사회·문화적으로 아버지에게 기대하는 양육과 대조적인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에게 스포츠양육을 통한 아버지다움 실천은 아버지의 성장과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와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 자녀와의 정서적 교류를 확장 시키고,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며 성숙한 존재로 인정하고 자녀를 대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들에서 보고하는 바와 같이 아버지들의 스포츠양육 참여는 자녀의 성장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아버지역할에 대한 성찰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Kay, 2007)

3. 아버지의 스포츠양육이 지니는 함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아버지다움과 스포츠양육에서의 아버지의 실천의 의미를 살펴볼 때, 오늘날 아버지의 스포츠양육 참여는 '좋은 아버지 담론의 한계 속에서 적극적 양육실천으로 놀아주는 것' 그리고 '스포츠양육을 통한 아버지다움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전통적 젠더의 재현' 두 가지 의미를 도출하였다.

먼저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오늘날 새롭게 기대되는 아버지다움과 현실 사이의 간극, 즉 이전의 생계부양자의 역할과 새로운 아버지다움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소난, 2013; 나성은, 2015; 백진아, 2009, 김혜경, 2002). 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아버지들이 자녀와 함께 놀아주고 스포츠클럽의 참여하는 것, 그리고 놀이가 확대되는 과정은 오늘날 생계부양자의 역할과 좋은 아버지담론이라는 현실적 딜레마 속에서 자녀와의 공통된 관심사를 갖게하고, 이를 통해 정서적 관계를 확장하는 등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 실천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Coakley(2006)는 유소년 스포츠 프로그램의 성장이 후기 산업사회에서 자녀, 양육, 가족과 관련된 문화적 요인과 사회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며, 일반적으로 아버지는 어머니와 비교하였을 때, 주로 즐거움을 위한 놀이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경향을 보이고, 어머니 보다 더 적은 시간, 정해진 시간에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되고 있다(Harrington, 2006).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에서 부모가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양육전략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으며, 오늘날 생계부양자의 역할과 좋은 아버지라는 두 가지 역할 속에서 아버지들이 정해진 시간에 자녀와 함께 참여하면서 좋은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보다 넓은 양육의 기회를 얻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스포츠는 아버지들에게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거부감 없

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해되어 왔다(Coakley, 2006). 또한 Harrington(2006)의 연구에서 스포츠는 아버지들로 하여금 아버지다움을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으로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 또한 스포츠클럽에서 자연스럽게 자녀와 함께 참여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스포츠양육을 통한 아버지다움을 실천하고 있었다. 스포츠양육은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집안에서의 양육은 어머니가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외부 활동은 아버지가 양육을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기존의 전통적인 젠더 역할을 재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소년 스포츠에 부모의 관여를 비교할 때 더 확연해 진다(Thompson, 1999; Messner, 2009). Messner(2009)는 자녀의 스포츠 기관에서 부모들이 봉사할 때, 아버지들은 종종 코치 혹은 보조코치로서 봉사한 반면, 어머니들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인 “Team moms”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참여하는 아버지, 지켜보는 어머니와 같은 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스포츠클럽에서의 어머니의 역할과 스포츠활동을 관리하고 주도적인 아버지의 모습은 기존의 전통적인 성 역할을 재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양육담론이 여성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온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오늘날 아버지들이 스포츠양육에 참여하는 것은 기존의 양육담론 속에서 남성성을 기반한 양육이 실천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양육담론에 대한 시각을 재조명할 수 있는 바를 시사하고 있다.

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스포츠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들이 인식하는 아버지다움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버지들이 스포츠양육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스포츠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들이 인식하는 아버지다움은 무엇인가? 2)아버지들이 인식하는 아버지다움은 스포츠양육을 통해 어떻게 실천되는가? 3)스포츠양육을 통한 아버지다움 실천의 의미는 무엇인가? 로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녀가 스포츠클럽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자녀의 스포츠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 10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문헌고찰과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아버지들이 인식하고 있는 아버지다움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 참여하는 아버지들은 관계적 측면을 중시하여 아버지다움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유년시절 아버지와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적 측면에서 아버지다움을 형성하고 있었다.

둘째, 스포츠양육을 통한 아버지다움의 실천은 오늘날 아버지들로 하여금 자녀에게 인생과 경험을 전수하고, 소통의 확대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아버지의 성장과 변화로 나타났다.

셋째, 오늘날 좋은 아버지담론의 한계 속에서 적극적 양육 실천의 전략으로 놀아주는 것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스포츠양육을 통해 아버지다움의 실천은 기존의 여성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양육이 전통적 젠더역할을 재현하는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2. 제언

본 연구는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아버지들이 인식하는 아버지다움을 토대로 스포츠클럽에서의 아버지다움의 실천이 오늘날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탐색하기 위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지금까지 제시된 연구결과와 논의, 연구가 갖는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야구를 중심으로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아버지의 경험과 의미를 탐색하였다. 하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야구 종목 뿐만 아니라 축구, 농구 등 다양한 종목에 참여하는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시기의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버지다움의 의미와 실천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아버지의 역할이 변화한다는 점에 기인하여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자녀의 학생선수 진학 결정 과정 그리고 학생선수로 전환 된 이후 아버지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족 형태에 따른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모습으로 가족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가족형태에 따른 아버지의 실천이 어떻게 나타나며,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스포츠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의 계층적 특성에 따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 특성에 아버지의 연봉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하지만, 사례수가 적은점과 계층이 아버지의 연봉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계층이 스포츠양육과 어떠한 관계와 의미를 갖는지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교육부 (2013).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 서울: 인성체육예술교육과.

교육인적자원부 (2007). **2007년 학생 건강검진 결과 분석 및 건강실태 조사 방법의 개선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구희영 (2016). **부모의 스포츠 양육과정과 의미 탐생-발레, 수영, 축구클럽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권민혁 (1994).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스포츠 참가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3,** 71-86.

권이종 (1996). **청소년학개론.** 서울 : 교육과학사.

김수영 (2001). 한국의 산업화과정과 가족·여성. **진보평론, 7**, 57-75

김신정, 김영희 (2007).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고찰. **부모자녀건강학회지, 10**(2), 172-181.

김영란 (2004). 한국의 신빈곤(new poverty)의 발생구조와 탈빈곤정책.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논문집,** 19-23.

김영미 (2012). 동아시아 가구고용형태의 다양성: 한국, 일본, 대만 비교연구. **여성학논집, 29**(2), 107-137.

김은경 (2009). 한국사회의 변화와 가족의 변화. **경남발전, 103**, 6-16.

김진호(2006). Positive Youth Development의 의미와 정책적 시사점. **미래청소년연구 3**(2), 71-88.

김현주 (2011). 부모의 생활체육 참여도가 초등학생의 스포츠 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22**(3), 11-31.

김혜경. (2002). 가족/노동의 갈등구조와 '가족연대' 전략을중심으로 본 한국가족의 변화와 여성. **가족과 문화, 14**(1), 31-52.

김혜영 (2016) '동원된 가족주의'의 시대에서 '가족위험'의 사회로. **한국사회, 17**(2), 3-44

김혜영. (2008). **남성 의 부성 경험 과 갈등 에 관한 연구 (Vol. 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나성은. (2014).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내재한 젠더 위계와'신 도구적'부성의 구성. **가족과 문화, 26**, 1-39.

맹이섭, 황미경 (2010). 부모의 문화자본 및 스포츠관여도와 자녀의 스포츠참여의 관계.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4**(5), 13-25.

문화체육관광부 (2015).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

백진아 (2009). 기혼 남성의 부성과 가족 경험. **현상과인식, 33**(4), 163-186.

서재철, 양광희. (2016). 초등체육(연구)의 전문성 확장을 위한 제언: '초등체육적인 것', '유소년 스포츠/여가', '아버지 역할하기'의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2**(1), 21-33.

성창훈, 유승준 (2011). 청소년 스포츠에서 선수들이 지각한 부모의 사회적 지지 구성요소와 프로파일. **한국체육학회지, 50**(1), 83-92.

손천택, 최기표, 안상수 (2007). 청소년중심 스포츠클럽 모형의 문화기술적 탐색.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0,** 769-784.

신경아 (2014). 신자유주의시대 남성 생계부양자의식의 균열과 젠더관계의 변화. **한국여성학, 30**(4), 153-187.

신용주. (2008). 아버지의 자녀양육 역할참여에 관한 문헌 고찰. **동덕여자대학교 생활과학연구,** 13, 45-55.

양소남. (2013). 아버지의 부성경험: 다양한 역할수행의 긴장과 갈등. **디지털융복합연구, 11**(2), 375-383.

이광호, 권승민, 김성훈 (2009). 여자 프로골프 선수들의 부모 관심도에 따른 자기주장과 특성 자심감과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7**(2), 1631-1639.

이동옥. (2014). 아버지 양육 담론의 한계와 대안적 부성. **젠더와 문화, 7**(2), 147-180.

이에리사 (1997). 부모가 중 , 고등학교 탁구선수의 사회화과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7,** 111-124.

이용식, 성문정, 고은하, 김경원, 이광희 (2005). **지역 스포츠클럽 정착을 위한 환경정비 방안**.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정기선, 김혜영 (2013). : 가족관계만족도를 통해서 본 한국가족의 변화: 1991

년~2008년도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6**(1), 175-202

정두환, 전정우 (2008). 유소년 스포츠 활동의 참여 동기와 참여 만족에 대한 연구. **태권도과학, 1,** 11-17.

정영린 (2006).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클럽스포츠 육성방안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5**(6), 105-116.

정영린 , 김홍설 (1996). 부모가 운동선수 역할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5,** 97-112.

정진성 (2009). 한국사회 부성의 구조. **페미니즘 연구, 9**(1), 79-111.

조영제, 서장원 (2001). 초등학생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른 스포츠 참여와의 관계. **한국체육교육학회지, 5**(2), 59-71.

조윤경 (2008). 신자유주의화 이후의 아버지 역할 변화.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927-945.

조은 (2008).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가족 정치의 지형. **한국여성학, 24**(2), 5-37.

조은, 은기수 (2007).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한국가족.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4-24.

채재성, 김현석 (2000). 스포츠사회학/클럽스포츠 정착을 위한 한국 스포츠의 구조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39**(3), 217-230.

통계청. (2011). **2011 청소년통계.**

허창혁, 오교문 (2013). 서울시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0**(2), 51-70.

허현미, 김선희 (2008).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개선에 대한 지도자의 인식. **한국체육학회지, 47**(5), 119-132.

홍찬숙 (2012). 한국사회의 압축적 개인화와 젠더범주의 민주주의적 함의. **여성과 역사, 17**, 1-23.

Astone, N. M., Dariotis, J. K., Sonenstein, F. L., Pleck, J. H., & Hynes, K. (2010). Men's work efforts and the transition to fatherhood.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3*1(1), 3-13.

Babkes, M. L., & Weiss, M. R. (1999). Parental influence on children's cognitive and affective responses to competitive soccer participation.

Pediatric Exercise Science, 11(1), 44-62.

Baldwin, D. R., McIntyre, A., & Hardaway, E. (2007). Perceived Parenting Styles on College Students' Optimism. *College Student Journal, 41*(3), 550-557.

Barclay, L., & Lupton, D. (1999). The experiences of new fatherhood: a socio cultural analysi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9*(4), 1013-1020.

Baumrind, D. (1971). T*heories of Child development.* New York: John Wileys & Sons.

Baumrind, D. (1996). The discipline controversy revisited. Family Relations, 45(4), 405-414.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Hoffman, M. L. & Hoffman, L. W(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1. NY: Russel sage foundation.

Brustad, R. J. (1993). Who will go outh and play? Parental and psychological influences on childrens's attraction to physical activity. *Pediatric Exercise Science, 5*, 210-223.

Cabrera, N., Tamis LeMonda, C. S., Bradley, R. H., Hofferth, S., & Lamb, M. E. (2000). Fatherhood in the twenty first century. *Child Development, 71*(1), 127-136.

Chudacoff, H. P. (2007). Children at play: An American history. NYU Press.

Coakley, J. (2006). The good father: Parental expectations and youth sports. *Leisure Studies, 25*(2), 153-163.

Coakley, J. (2011). Youth sports: What counts as "positive development?" *Journal of Sport and Social Issues, 35,* 306-324.

Coakley, J. (2011). Youth sports: What counts as "positive development?" *Journal of Sport and Social Issues, 35,* 306-324.

Coakley, J., Hallinan, C. J., & McDonald, B. D. (2011). *Sports in society: Sociological issues and controversies.* McGraw Hill.

Collins, K., & Barber, H. (2005). Female athletes' perceptions of parental

influences. *Journal of Sport Behavior, 28*(4), 295.

Creswell, J. W. (2012).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London: Sage.

Darling, N. & Steinberg, L. (1993). Parenting style as context: An integrative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3*(3), 487-496.

Dyck, V., & Daly, K. (2006). Rising to the challenge: Fathers' role in the negotiation of couple time. *Leisure Studies, 25*(2), 201-217.

Fraser-Thomas, J., & Côté, J. (2009). Understanding adolescents' positive and negative developmental experiences in sport. *The Sport Psychologist, 23*(1), 3-23.

Fredricks, J. A., & Eccles, J. S. (2002). Children's competence and value beliefs from childhood through adolescence: growth trajectories in two male-sex-typed domains. *Developmental Psychology, 38*(4), 519.

Gadeyne, E, Ghesquière, P., & Onghena, P. (2004). Psychosocial functioning of young children with learning problem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5*(3), 510-521.

Giddens, A., & Sutton, P. (2009). *Sociology. 7th*. Cambridge: Polity.

Gonzalez, A. L., & Wolters, C. (2006). The Relation Between Perceived Parenting Pratices and Achievement Motivation in Mathematics. *Journal of Research in Childhood Education, 21*(2), 203-217.

Gould, D. (1987). Understanding attrition in children's sport (Vol. 2, No. Behavioral issues, pp. 401-411). Champaign, IL: Human Kinetics.

Gould, D. and Carson, S. (2008). Life skills development through sport: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International Review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 58-78.

Green, C. B. & Chalip, L. (1998).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parental purchase involvement in youth sport. *Leisure Sciences, 20*, 95-109.

Harrington, M. (2006). Sport and leisure as contexts for fathering in Australian families. *Leisure Studies, 25*(2), 165-183.

Holt, N. L.(Ed.).(2008). *Positive youth development through sport.* New York, NY: Routledge.

Holt, N. L., & Knight, C. J. (2014). Parenting in Youth Sport From research to practice. New York, NY: Routledge.

Horn, T. S., & Horn, J. L. (2007). *Family influences on children's sport and physical activity participation, behavior, and psychosocial responses. Handbook of Sport Psychology, Third Edition*, 685-711.

Hutchinson, S., Kardos, J., Scherphorn, P., Tung, H. Y., Yang, H., & Yarnal, C. (2002). *A call for fathers: The absent voice in family leisure research.* In Abstract of paper presented at the Tenth Canadian Congress on Leisure Research, Edmonton, Alberta.

Kay, T. (2006). *Editorial: Fathering through leisure.*

Kay, T. (2007). Fathering through sport. *World leisure journal, 49*(2), 69-82.

Klint, K. A., & Weiss, M. R. (1986). Dropping in and dropping out: participation motives of current and former youth gymnasts. Canadian Journal of Applied Sport Sciences.

Lamb, M. E., & TAMIS-LEMONDA, C. S. (1996). *The role of the father.* New York: Wiley.

Lamb, M. E., Pleck, J. H., Charnov, E. L., & Levine, J. A. (1985). Paternal behavior in humans. *American Zoologist,* 883-894.

Lamborn, S. D., Mounts, N. S., Steinberg, L., & Dornbusch, S. M. (1991). Patterns of competence and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2*(5), 1049-1065.

LaRossa, R. (1988). Fatherhood and social change. *Family Relations, 37*(4), 451-457.

Larson, R. W. (2000). Toward a psychology of positive youth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5*, 170-83.

Larson, R. W. (2000). Toward a psychology of positive youth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5, 170-83.

Larson, R., & Verma, S.(1999). How children and adolescents spend time across cultural settings of the world: work play and developmetntal opportunities. *Psychological Bulletin, 125*, 701-36.

Lerner, R. M., Brown, J. D., & Kier, C. (2005). *Adolescence: Development, diversity, context, and application.* Toronto, ON: Pearson Education.

Lerner, R. M., Lerner, J. V., Almerigi, J., Theokas, C., Naudeau, S., Gestsdottir, S., & von Eye, A. (2005). Positive youth development, participation in community youth development programs, and community contributions of fifth-grade adolescents: Findings from the first wave of the 4-H Study on Positive Youth Development.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5,* 17-71.

Marsiglio, W., & Pleck, J. H. (2005). Fatherhood and masculinities. *The handbook of studies on men and masculinities,* 249-269.

Mead, G. H.(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김문조 외 8인 공역(2004). 사회학이론의 형성. 서울:일신사.

Messner, M. (2009). *It's all for the kids: Gender, families, and youth sports.* Univ of California Press.

Morgan, D. (2004). *Men in families and households* (pp. 374-393). Oxford: Blackwell.

Morgan, D. H. (1999). Risk and family practices: accounting for change and fluidity in family life. *The New Family,* 13-30.

Palkovitz, R. (2002). *Involved fathering and child development: Advancing our understanding of good fathering.* Handbook of father involvement: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119-140.

Pittman, K., Irby, M. and Ferber, T. (2001). *Unfinished business: Further reflections on a decade of promoting youth development. In P.L. Benson and K.J. Pittman (Eds.), Trends in youth development: Visions, realities and challenges.* Norwell, MA: Kluwer Academic Publishers.

Sarrazin, P., Vallerand, R., Guillet, E., Pelletier, L., & Cury, F. (2002). Motivation and dropout in female handballers: A 21 month prospective stud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2*(3), 395-418.

Strage, A., & Brandt, T. S. (1999). Authoritative Parenting and College Students' Academic Adjustment and Succes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1(1), 146-156.

Theokas, C., &Lerner, R. M., Dowing, E. M., Benson, P. L., Scales, P. C., & von Eye, A. (2005). Conceptualizing and modeling individual and ecological asset components of thriving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5*(1), 113-143.

Thompson, S. M. (1999). *Mother's taxi: Sport and women's labor.* SUNY Press.

Ullrich-French, S., & Smith, A. L. (2006). Perceptions of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peers in youth sport: Independent and combined prediction of motivational outcomes.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7*(2), 193-214.

부록1. 연구 참여자용 동의서

연구 동의서 (연구참여자)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8. 나는 연구 진행과정에서 녹음과 관찰이 이루어지는 것에 동의하며, 나의 개인 정보가 알려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부록2. 연구 참여자용 동의서

연구 동의서(기관 운영자)

안녕하세요. 본 연구는 스포츠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들의 경험과 의미 탐색을 통해서 오늘날 아버지들의 스포츠양육 참여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탐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 대상은 유소년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자녀가 있고, 자녀의 스포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됩니다.

이에 본 연구는 귀하의 기관에 방문하는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버지들에게는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를 통해 연구에 대한 설명과 동의서를 받고 진행할 것이며, 연구진행 과정에서의 불쾌감,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위험요소를 방지하기 위한 본 연구자의 노력과 과정을 충분히 설명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는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 질 것이며, 연구 참여자가 그만 두고 싶으면 어떠한 불이익 없이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 대한 동의를 할 경우 동의서에 서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구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성심 성의껏 알려드리겠습니다.

기관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 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Abstract

The Experiences and Significance of Fathers Participating in Sports Parenting

- Focused on Y-Youth Baseball Club -

Park, Chanwoo
Dept. of Physical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erceptions of fatherhood and its effect on experiences and meanings of sports parenting among fathers who participate in sport parenting.

We have posed a number of questions for this topic: 1) What is the perception of fatherhood among fathers who are participating in sports parenting? 2) How does the perception of fatherhood apply to sports parenting? 3) What meanings does achieving fatherhood have through sports parenting?

For this research topic, data was collected from January to June, 2017.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selected based on the criterion

sampling.

Therefore, ten fathers who have actively participated in a youth baseball team with their child for at least one year were chosen as research participant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fatherhood -based on sport parenting- is perceived in various aspects. Especially, father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relationships’ when building fatherhood: ‘relationship between father and son(during their childhood)’, ‘relatio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 and ‘relationship between father and their child’.

Second, sports parenting is not only seen as an opportunity to convey life experiences for their children, but also seen as a mediator for the expansion of father-child communication. Furthermore, as fathers experience sports parenting, they observe growth in their child and understand their child which leads to changes in both behavior and attitude about being a father.

Third, to be a ‘good father’ in modern society, sports parenting can be referred to as a strategic way to achieve ‘good fatherhood’ by actively participating with their child in the child’s play. Moreover, the practice of fatherhood through sports parenting -parenting, once considered to be traditionally a feminine domain- has lead to become a space that reconstructs gender roles.

Key word: sport parenting, fatherhood, father, fathering